

2023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학술회의

소장 자료로 본
19~20세기

인천

2023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학술회의

소장 자료로 본
19~20세기

인천

일 시 : 2023년 10월 27일(금) 14:00~17:00

장 소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석남홀

일 정

구분	시간	내 용	발표자 · 토론자
개회	14:00~14:10	개 회 사	손장원(인천광역시립박물관장)
사회 신은미(인천광역시립박물관)			
발표	14:10~14:50	조선기계제작소 『인천공장 제2차 확장 완성에 의한 총설비 및 사업개요』 내용 분석과 가치	발표 배석만(카이스트) 토론 박민주(인천광역시립박물관)
	14:50~15:30	일제강점기 여행자가 그린 인천	발표 윤현진(한국이민사박물관) 토론 신민정(가천대학교)
	15:30~15:40	휴 게 시 간	
	15:40~16:20	‘신축개비’명 환도를 통해 본 조선후기 실전용 환도	발표 박제광(건국대학교 박물관) 토론 강신엽(전 육군박물관)
	16:20~17:00	『소성진중일지』의 사료적 가치 고찰	발표 노영구(국방대학교) 토론 조혁상(홍익대학교)

발표1 07
조선기계제작소 『인천공장 제2차 확장 완성에 의한 총설비 및 사업개요』 내용 분석과 가치
배석만(카이스트)

발표2 25
일제강점기 여행자가 그린 인천
윤현진(한국이민사박물관)

발표3 49
‘신축개비’명 환도를 통해 본 조선후기 실전용 환도
박제광(건국대박물관)

발표4 67
『峇城陣中日誌』의 사료적 가치 고찰
노영구(국방대학교)

조선기계제작소
『인천공장 제2차 확장 완성에 의한 총설비 및 사업개요』
자료 분석과 가치

배석만
(카이스트)

- I. 머리말
- II. '식민지 공업화'와 (주)조선기계제작소
- III. 자료의 구성과 내용
- IV. 맺음말: 자료의 가치

I. 머리말

이 글은 ‘주식회사 조선기계제작소-이하 조선기계제작소’가 발간한 회사소개 자료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그 자료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자료의 정확한 명칭은 『인천공장 제2차 확장 완성에 의한 총설비 및 사업개요(仁川工場第二次擴張完城に依る總設備及事業概要)』이고, 1941년 10월 조선기계제작소 본사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본사에서 작성했다는 사실은 동 자료의 표지에 조선기계제작소 본사 주소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천기계제작소는 설립 당시부터 본사는 서울에 공장을 인천에 둔 체제였는데, 본사는 경성부 하세가 와초(長谷川町, 현 중구 소공동) 21번지에 있었다. 동 자료의 표지에는 동일한 주소와 함께 해당 주소에 있는 건물 후지빌딩(富士ビル)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후지빌딩은 당시 새로 지어진 6층짜리 오피스빌딩이었는데, 조선기계제작소가 임대하여 입주한 것이었다.¹⁾

자료는 제목에서 보듯이 조선기계제작소가 2차 공장설비 확장을 마친 후 전체 설비의 현황과 이를 가지고 제작할 수 있는 생산품을 소개한 것이다. 이 글은 동 자료를 통해 조선기계제작소의 경영과 관련하여 알 수 있는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것이 관련 연구에서 가지는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주지하듯이 조선기계제작소는 1930년대 조선총독부가 본격 추진한 ‘식민지 공업화’의 핵심 기업이었다. 그리고 전시체제 전환 속도에 비례하여 강화되는 군수공업적 성격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록 14쪽에 불과한 간단한 기업소개 자료이지만 그 내용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의외로 크다. 그런 점들을 이야기해 볼 것이다.

1) 후지빌딩은 1937년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로 여러 기업체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수익을 낼 목적으로 지어진 오피스빌딩이다. 경영 주체는 같은 해 3월 설립된 ‘주식회사 후지빌딩’(자본금 50만 엔)이다. 일본 굴지의 제과업체인 모리나가제과(森永製菓)가 임대 사업을 위해 설립했다. 방식은 모리나가제과의 조선 판매처였던 ‘모리나가제품조선판매(주)’(자본금 50만 엔 1929년 설립)의 자회사 형태였다. 해방 후 후지빌딩은 이승만과 관계가 있었던 사업가 정규성(丁奎成)이 불하받아 건물 이름을 삼화(三和)빌딩으로 바꾸고 운영을 계속하였다. 현대건설도 1950년대 이 건물에 입주해 있었다. 1980년대초 철거되고 그 자리에 1984년 ‘소공한국빌딩’이 세워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II. ‘식민지 공업화’와 (주)조선기계제작소

조선기계제작소는 193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되는 ‘식민지 공업화’의 상징적 존재이다. 무엇보다 식민지 조선의 공업화를 본격 논의하는 자리였던 ‘조선산업경제조사회’ 회의의 주요 결과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1920년대 장기 불황과 그 종착점으로서의 대공황은 조선총독부의 일본에 대한 식량공급기지로서의 농업 중심 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 식민지 공업화이다. 그 방법은 일본 ‘자이바쓰(財閥)’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 자본이 식민지 조선에 투자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당시 대륙침략과 경영의 핵심 주체였던 관동군을 중심으로 한 일본 군부의 도움을 받으려 하였다. 따라서 조선총독부가 추진한 식민지 공업화의 형태는 처음부터 일본 제국주의 국책과 군수 확충에 역할을 한다는 슬로건이 제창되었고, 그것은 ‘대륙전진병참기지’로 정의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실무 회의 형태로 진행된 것이 1936년 10월 ‘조선산업경제조사회’였다.

조선산업경제조사회에는 일본과 조선의 정군관계(政軍官界) 주요 인물들이 참석하여 일본 제국주의 국책에 조응하는 식민지 조선의 공업화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 논의의 산물 중 하나가 조선기계제작소였다. ‘국책상 중요한 공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진흥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에 입각하여 계획된 기업이었다.

‘국책상 중요한 공업’에서 조선기계제작소 설립에 이르게 된 ‘국책’은 금의 증산과 이를 위한 금광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산금정책(産金政策)’이었다. 산금정책은 일제가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국책이었다. 그 배경에는 대공황탈출의 방책으로 ‘금수출 재금지조치’를 단행한 것에 있었다. 그 결과로 하락하는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 하나로 금이 필요했다. 대량의 금 확보는 대륙침략 본격화에 따라 193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부터 보다 절실했다. 군비 확장과 그 토대가 되는 군수산업 중심의 생산력확충에 따른 기차재 수입 급증으로 국제무역 결제수단으로서의 금의 확보가 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른바 ‘엔블록경제’라고 불리는 폐쇄경제의 확대·강화도 대외결제수단으로서의 안정적 금 확보의 필요성을 강화하였다. 조선총독부도 이러한 제국의 방침에 따라 1937년 초 ‘산금증산5개년계획(1938~1942)’을 수립하여 본격 추진하였다.

조선산업경제조사회를 계기로 한 조선기계제작소 설립은 이렇듯 1930년대 일본 제국주의 최우선 국책이었던 산금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식민지 조선의 금광개발을 위한 것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금광 개발에 필요한 광산용 기계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설립이 가시화되었던 것이다.

기업 설립의 구체적인 방법은 일본 기업의 직접 진출이었다. 진출기업은 일본에서 광산용 기계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신흥종합기계메이커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던 요코야마공업소-정식 명칭은 ‘株式會社 橫山工業所’-였다. 요코야마공업소가 진출하게 된 계기는 조선산업경제조사회에 위원으로 참석한 일본 네즈(根津) 재벌의 창업자 네즈 가이치로(根津嘉一郎)와 1930년대 신흥재벌 모리(森)콘체른의 총수 모리 노부테루(森蘆禎)의 추천에 의한 것이었다. 네즈는 요코야마공업소 사장 요코야마 기미오(橫山公雄)의 야마나시현(山梨縣) 동향 선배로 요코야마의 사업후원자였고, 모리는 모리콘체른 계열사인 쇼와광업(昭和鑛業)에 요코야마공업소가 광산용 기계를 납품하고 있었던 연유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조선산업경제조사회가 개최된 지 8개월만인 1937년 6월 4일 서울 한성은행 집회소에서 자본금 50만 엔의 조선기계제작소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공장은 인천 만석동- 당시 지명은 萬石町-에 건설하고 본사는 서울에 두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창립과 함께 전액 불입된 자본금의 출자구조는 설립 배경이 그대로 반영되어 요코야마공업소와 양대 재벌이 출자금의 절반을 담당했다. 네즈 재벌은 원래 요코야마공업소의 자금 후원자였으므로 실제로는 요코야마와 모리 콘체른의 자본합작으로 볼 수 있고, 당시 언론도 그렇게 보도했다. 그 외에 수요자인 광산업자, 원료공급자인 제강업자, 인천지역 상공업자의 지역유지 관점의 자본출자가 이루어졌다.²⁾

이후 조선기계제작소는 1945년 일제 패전 시까지 불과 8년 동안 매우 급속한 규모의 확장을 이루었다. 설립 당시에 50만 엔이었던 자본금은 800만 엔으로 16배가 늘었고, 이것을 토대로 수차례에 걸쳐 대규모 설비 확장이 단행되었다. 그 결과 100명이 되지 않았던 종업원 수는 1945년 패전 시에는 5,000명이 넘게 되었다.³⁾ 그 과정에서 기업의 성격도 민간 광산용기계 제작을 주력으로 하는 기계공장에서 육군 포탄강과 시추기, 그리고 해군용 선박엔진을 거쳐서 마

2) 배석만, 2009, 「일제시기 조선기계제작소(朝鮮機械製作所)의 설립과 경영(1937~1945)」, 『인천학연구』10, 169~170쪽.

3) 일제 패전 당시 조선기계제작소의 종업원 수는 대부분이 조선인인 직공 4,512명, 직원 516명이었다. 관련해서는 조선총독부, 1945, 『제조산업현상개요조사서』6 금속 및 기계공업 참조. 설립 초기 종업원 규모는 조선총독부 식산국, 1939, 『공장명부』 1939년판 참조.

지막에는 ‘결전병기’로 불렸던 잠수정을 건조하는 군용 조선소로 변했다. 일제의 전시체제 구축에 비례하여 민간기업으로서의 자율성은 약화되고 국가 명령에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군수회사의 성격이 강화되어 나가는 전형적인 과정이었다. 조선기계제작소의 군수공장으로서의 변화 과정에 대해 요코야마공업소가 중심이 된 경영진도 굳이 여기에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 군부가 주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이들에 동조한 일본 자이바쓰의 자본·기술을 적극 이용하여 급속한 성장을 이루려고 하였다. 사실 모기업 요코야마공업소 자체가 그렇게 급성장한 기업이었다.⁴⁾ 따라서 조선기계제작소의 성장과 변형은 1930년대 후반부터 대륙전진병참기지의 슬로건 하에 본격화된 국책·군수산업 중심의 ‘식민지 공업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⁵⁾

해방 후 조선기계제작소의 경영 과정도 한국경제사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기업의 해방 후 모습과 이후 전쟁과 복구, 경제개발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변화상은 ‘식민지 공업화’의 한계, 좀 더 크게는 일제 식민지 경제개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조선기계제작소는 해방으로 종업원 5,000명의 거대 중공업 공장이 한국에 넘겨졌고, 남한만을 놓고 보면 부산의 조선중공업(주)와 함께 사실상 ‘유이’의 존재였지만 이후 한국 경제 발전에서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일본인들이 빠져나가면서 자본과 기술이 갑자기 사라졌고, 일본과 분리되면서, 그리고 전쟁 특수가 사라지면서 시장 또한 없어졌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통제·관리되지 않는 거대 중공업 공장 설비와 직공들, 그리고 소수의 경험 적은 젊은 엔지니어들이었다. 이들만으로 공장을 정상화하는 것은 역부족이었으며, 곧 일어난 전쟁은 그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조선기계제작소 도크(dock) 안에 고철화되어 방치되고 있는 잠수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다음 사진은 이런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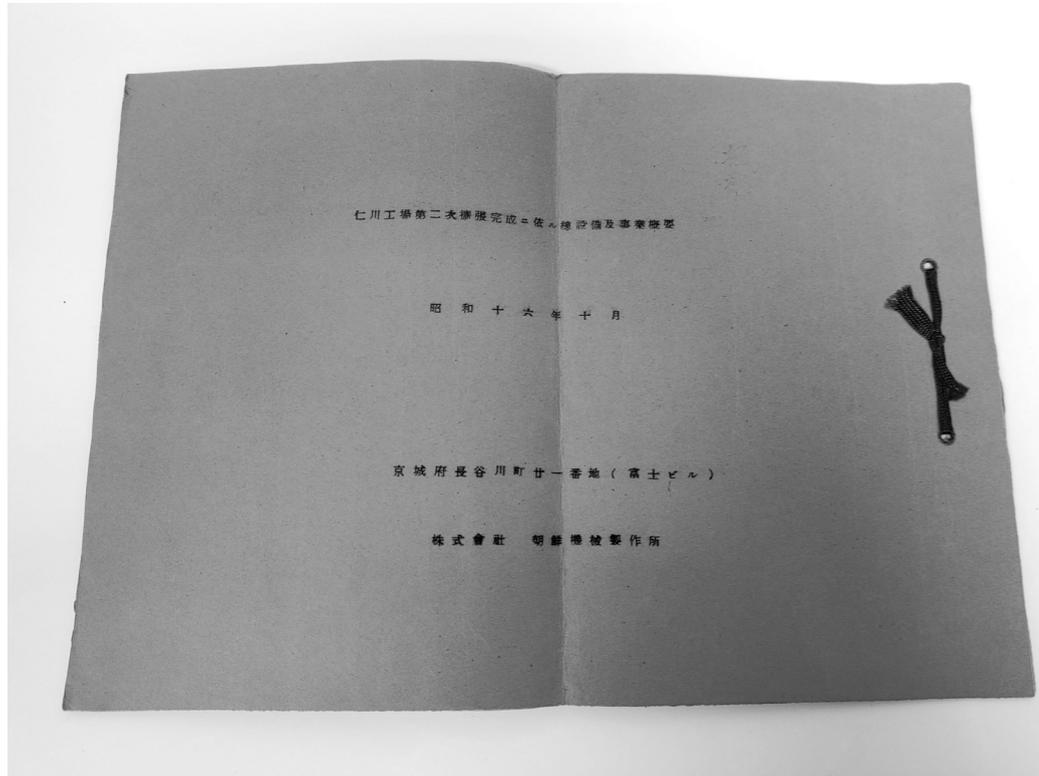
〈사진 1〉 해방 후 조선기계제작소 도크 안의 고철화된 잠수정
 자료: 인천뉴스(<http://www.incheonnews.com>), 2018.8.6., 원자료 출처:화도진도서관

휴전 후, 잠수정을 만들던 도크를 메우고 다시 종합기계공장으로 전환하여 국영 체제로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박정희정권기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진행될 때에도 이미 세월이 흘러 노후한 설비가 되어버린 조선기계제작소(한국기계공업(주)→대우중공업), 조선중공업(대한조선공사)은 더이상 기계, 조선이라는 동종 업계의 대표 기업이 아니었다. 그 자리는 신설 업체로 현대양행(한국중공업→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차지하였다.

4) 勝田貞次, 1938, 『伸びる工業』, 今日の問題社, 228~238쪽.

5) 배석만, 앞의 논문 참조.

Ⅲ. 자료의 구성과 내용



〈사진 2〉 자료 표지

여기서 소개하는 조선기계제작소가 1941년 발간한 『인천공장 제2차 확장 완성에 의한 총설비 및 사업개요(仁川工場第二次擴張完成に依る總設備及事業概要)』 자료는 표지를 포함하여 단면 인쇄의 12쪽짜리 짧은 분량의 문건이다. 자료는 펀칭하여 끈으로 묶었다. 서울 소공동 본사에서 발간한 것이며, 제목에서 보듯이 조선기계제작소 공장의 2차 확장으로 구축하게 된 생산설비의 자세한 사양과 이들 설비를 통해 가능한 사업영역, 생산품, 생산능력, 종업원 수 등을 소개하는 것이다. 관련 내용 구성은 주식회사 조선기계제작소 개요(2쪽), 주식회사 조선기계제작소 설비개요(9쪽)이다. 그리고 이 문건 외에 공장 배치도(1쪽), ‘대일본제국정부’라고 인쇄된 양식 용지에 필사되어 있는 메모(1쪽)가 별도로 첨부되어 있다.

우선 〈사진 2〉의 표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부터 보자. 현재의 서울 소공동에 위치했던 후지빌딩의 조선기계제작소 본사 정보는 서론에서 언급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으로 자료 제목

을 보면 ‘2차 확장’이라는 제목을 단 이유는 그 앞에 1차 설비 확장공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회사 설립 후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1938년 4월, 조선기계제작소는 자본금을 300만 엔으로 증자하여 1차 설비확장을 하였다. 그 내용은 단조(鍛造)공장 신설, 그리고 제강(製鋼)공장, 주조(鑄造)공장, 제관(製罐)공장, 기계공장 설비의 확장이었다. 1차 설비 확장공사는 1939년 완성되었다.⁶⁾

동 자료의 2차 설비확장 공사는 1차 확장공사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그 결정은 1939년 7월 인천공장에서 열린 정기주총에서 이루어졌고, 설비확장을 위한 2차 증자도 단행되었다. 증자 규모는 기존 300만 엔에서 600만 엔으로 자본금을 다시 2배로 늘리는 것이었다. 조선기계제작소가 모기업 요코야마공업소를 매개로 모리 콘체른와 네즈 등 일본 거대 자이바쓰의 지원을 받고 있기는 했지만, 막대한 고정비가 투입되는 중공업 공장이 설립 초기부터 대규모 시설확장을 연이어 단행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다. 이런 이례적인 연속 확장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일제가 국책 차원의 추진한 산금정책이 강력하게 진행되는 데 따른 광산용 기계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다. 관련하여 조선기계제작소는 1차 설비확장으로 완성된 시설로도 넘쳐나는 주문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였다.⁷⁾ 동 자료는 이렇게 시작된 1939년부터의 2차 설비 확장의 결과를 1941년 10월 시점에서 정리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조선기계제작소의 2차 설비확장은 1942년 봄에 완성되어 6월 회사 설립 5주년에 맞춰서 성대한 낙성식이 거행되었다.⁸⁾ 따라서 본 자료의 표지에 적힌 1941년 10월이라는 작성 시기는 2차 공사가 준공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그 공사 결과를 소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료에 서술된 설비 중 일부는 아직 공사 중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주문 생산을 주로 하는 기계공장의 특성상, 신규 대규모 설비확장을 통해 다양한 최신 기계제품의 생산이 가능함을 홍보할 목적으로 제작한 회사 소개서로 볼 수 있다. 물론 일반에 무제한 배포하는 ‘홍보용 기업 카탈로그’는 아니고, 정부와 군부 등을 포함하는 관계기관, 주요 수요처에 배포하는 것으로 제한되었을 것이다. 자료 안의 각 공장별 설비 명세에 ‘극비’의 붉은 인장이 찍혀 있는 것이 그 근거이다. 그리고 자료가 발간된 1941년 10월이라는 시점은 태평양전쟁 발발 2달 전이라는 것도

6) 배석만, 앞의 논문, 172~173쪽.

7) 조선기계제작소, 『제6기영업보고서(1939.7~1939.12)』.

8) 조선기계제작소, 『제11기영업보고서(1942.1~1942.6)』.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

이제 주요 내용을 검토해 보자. 우선 ‘주식회사 조선기계제작소 개요(2쪽)’는 제목 그대로 2차 설비확장이 거의 마무리된 1941년 10월 시점의 조선기계제작소에 대한 간략한 소개이다. 2쪽의 짧은 내용이지만 의미 있는 새로운 정보가 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3차 증자가 1941년 10월 시점에서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기존 600만 엔에서 800만 엔으로 다시 200만 엔의 증자하는 것으로 회사 내부에서는 결정되어 조선총독부에 인가신청을 하고 있는 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증자에 대한 인가신청은 ‘임시자금조정법’에 따른 것이다. 다시 증자가 필요했던 이유는 2차 설비확장공사의 부족한 경비조달, 그리고 일본 철강·조선업계의 대기업 일본강관(日本鋼管)의 자본 참여에 기인한 것이었다. 일본강관의 자본 참여는 조선기계제작소가 조선 소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3차 증자를 통해 조선기계제작소의 자본금 규모는 모기업 요코야마공업(주)-(주)요코야마공업소에서 사명 변경-과 동일해 졌음도 알 수 있다. 외형적으로는 모회사와 규모가 같아진 것이다. 그리고 서울 본사와 인천 공장 외에 도쿄에 영업소, 청진에 출장소를 설치했음도 확인된다.

2차 설비확장 후 생산 가능 제품도 확인할 수 있다. 24종에 이르는 각종 광산용기계를 필두로 수송기계, 단조강구(鍛造鋼球), 각종 치차(齒車), 토목·철강·화학 등 각종 산업용기계, 주강·주철·단강 등 각종 철강 제품 등이다. 2차 설비확장 후 동 자료가 열거한 생산가능 제품의 면면을 통해 사실상 제강→주조 및 단조→제관→기계로 이어지는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한 대단위 종합기계공장의 면모를 갖춘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조선기계제작소 설비개요(9쪽)’는 동 자료의 중심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2차 설비확장 후 구축된 각종 설비의 상세 내역과 제품별 생산능력, 인력, 교통인프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총 3만 3,510평의 부지에 주력 설비는 기계, 제강, 압연, 단조 공장이 각각 2동씩 건설되었고, 제관, 주철(鑄鐵), 목형(木型)공장이 각 1동, 시험실, 공기압축기실, 수압교병장(水壓鉸鉸場), 그리고 사원과 공원 사택, 저장품 및 재료창고 등이 조성되었다. 해당 공장들의 면적과 전기로, 용선로, 기증기 등의 주요 설비의 사양과 능력 등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각 공장의 구체적인 설비 사양에 대해 ‘극비’의 붉은 인장이 찍혔고, 제2기계공장의 주요 설비 및 사양은 ‘발표외(發表外)’로 하여 기술하지 않았는데, 이 시기 조선기계제작소가 이미 제국 차원의 중요 군수공장의 성격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축된 설비를 통해 갖게 된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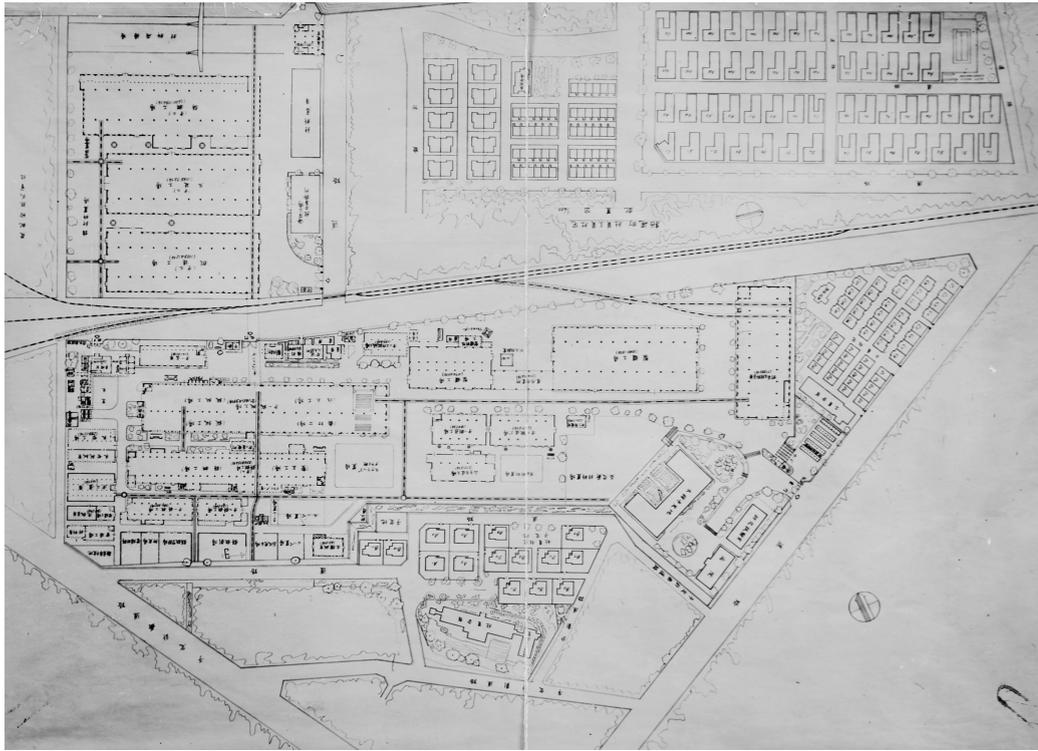
능력은 광산용을 중심으로 기계류가 12,980톤, 주강품 4,700톤, 주철품 800톤, 단강품 1,700톤, 단조강구 3,500톤, 치차 180톤으로 총 23,860톤이었다.

교통인프라는 육로의 경우 인천역으로 연결되는 철도가 공장 구내까지 직접 연결되고, 소운송의 경우 화물자동차를 이용하며, 공장 내에는 각 공장을 연결하는 운반용 레일도 구축되었다. 해로의 경우 공장 앞에 안벽(岸壁)을 건설하여 인천항에서 범선을 이용하지 않고, 선박이 바로 안벽에 계류하여 하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역 물품의 공장까지 운송은 트럭 등을 이용하였다.

아쉬운 것은 동 자료가 2차 확장을 통해 새롭게 건설된 시설을 기존 시설과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다른 자료들과 대조하여야 한다. 조선기계제작소 『영업보고서』 등을 참조하면, 제2단조공장 신설, 기계공장 확충을 실시하고, 새로운 부지에 제강공장, 압연공장이 건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기존 시설은 ‘야마테(山手)공장’, 2차 확충으로 새로운 부지에 신설된 공장을 ‘가이간(海岸)공장’이라고 불렀다.⁹⁾ 관련하여 참조할 수 있는 것이 별첨 형태의 ‘공장 배치도’이다. 2차 확장 후 조선기계제작소 인천공장의 전체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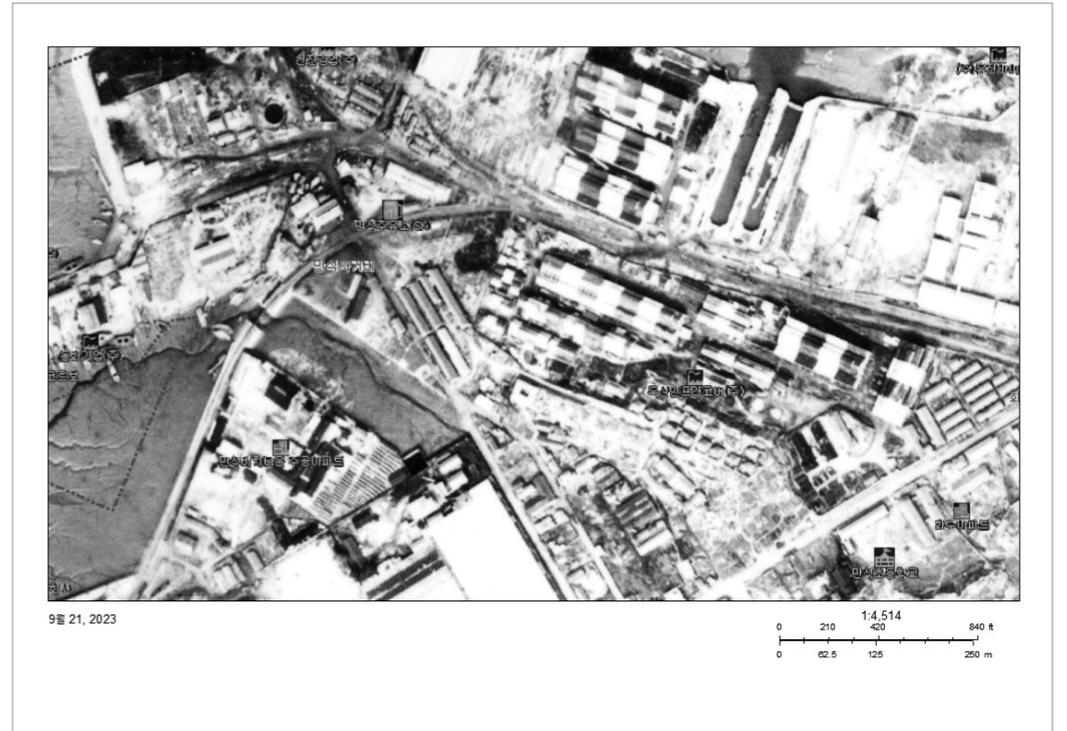
9) 배석만, 앞의 논문, 173쪽.

10)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동 자료의 ‘주식회사 조선기계제작소 설비개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 차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사진 3〉 조선기계제작소 공장배치도

〈사진 3〉의 공장배치도를 보면 중앙의 철로를 기준으로 아래가 ‘아마테공장’이다. 철로 위쪽의 왼편이 ‘가이간공장’이고, 그 옆은 동 자료가 생산된 1941년 말 시점에서는 비어있는 공간이다. 여기에는 이후 1943년 육군의 명령으로 잠수정을 건조하기 위해 도크 2기와 관련 부대시설이 들어서는 곳이기도 하다. 공장배치도에서 이 비어있는 공간에 송현정(현 松岷洞)에 건설된 사원 및 공원 사택의 배치도를 그려넣었다. 〈사진 4〉의 1947년 조선기계제작소 항공사진과 비교하면 공장배치도를 이해하는데 일정하게 참고가 된다.



〈사진 4〉 1947년 조선기계제작소 항공사진

자료: 인천광역시 지도포털(<http://imap.incheon.go.kr/icmap/map.jsp>)

마지막으로 공장배치도와 함께 별첨 되어 있는 ‘필사체 메모’는 메인 자료인 『인천공장 제2차 확장 완성에 의한 총설비 및 사업개요』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 불명확하다. 다만 적혀 있는 내용을 통해 개략적인 추정은 가능하다.

내용은 ‘해무원(海霧院)의 티켓(切符)으로 가능, 200마력 200대를 목표로 함, 스크랩(scrap, 고철, 파철-필자 주)을 용해하여 얻음, 해군 제5부 소가(曾我) 中佐와 이야기 함, 육군은 감산(두줄로 지움-필자 주) 영향 없다면 가능, 창구는 일본강관, 요코야마공업소이다. 2차 확장 후 조선기계제작소의 생산계획으로 보이는데, 일본 군부와 관련된 200마력 성능의 엔진 200대를 제작하며, 필요 원료(철강재)는 스크랩을 용해해서 자체 조달하며, 관련한 협조는 군부와 해무원을 통해, 창구는 일본강관과 요코야마공업소를 통한다는 것이었다. 해무원은 일본 해사(海事) 행정을 총괄하는 기구이고, 일본강관은 앞서 언급했듯이 3차 증자에 출자하는 일본 유수의 중공업회사이다.

IV. 맺음말 : 자료의 가치

이상, 『인천공장 제2차 확장 완성에 의한 총설비 및 사업개요』 자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동 자료는 조선기계제작소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활용된 적이 없는 자료이다. 아울러 특히 중요한 것은 2차 확장이 완료된 1941년 말 시점의 조선기계제작소 실체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는 것이다. 동 자료에는 건설된 주요 공장들과 각각의 공장에 설치된 주요 설비의 사양과 생산능력, 전체 종업원 수, 교통인프라 등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를 통해 태평양전쟁 발발과 이를 계기로 일본 육군의 명령으로 잠수정을 만드는 조선소로 변모하기 전까지 종합기계공장으로서 구축된 조선기계제작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별첨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공장 배치도’는 이렇게 확장된 조선기계제작소의 모습과 각 공장들의 위치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해 준다.

지금까지 식민지 공업화를 상징하는 기업이자, 태평양전쟁기 일제 핵심 군수회사로 변모하여 중요한 역사적 위상을 가진 조선기계제작소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비확장을 해 나갔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불명확한 부분이 많았다. 가장 큰 이유는 본격적인 전시체제기로 접어들고 조선기계제작소가 군수공장의 성격이 강화되면서 설비와 생산능력, 종업원 수 등 공장 규모와 성격을 알 수 있는 관련 정보가 비밀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동 자료는 앞으로 조선기계제작소 관련 연구의 심화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배석만, 2009, 「일제시기 조선기계제작소(朝鮮機械製作所)의 설립과 경영(1937~1945)」, 『인천학연구』 10.
- 勝田貞次, 1938, 『伸びる工業』, 今日の問題社.
- 조선기계제작소, 『제11기영업보고서(1942.1~1942.6)』.
- 조선기계제작소, 『제6기영업보고서(1939.7~1939.12)』.
- 조선총독부 식산국, 1939, 『공장명부』 1939년판.
- 조선총독부, 1945, 『재조선기업현상개요조사』 6 금속 및 기계공업.
- 인천뉴스(<http://www.incheonnews.com>), 2018.8.6.
- 인천광역시 지도포털(<http://imap.incheon.go.kr/icmap/map.jsp>).

박민주(인천광역시립박물관 유물관리부)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조선기계제작소가 1941년 10월에 작성한 『인천공장 제2차 확장 완성에 의한 총설비 및 사업개요(이하 자료)』에 대한 분석과 가치에 대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발표는 크게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진행되었던 ‘식민지 공업화’와 조선기계제작소의 설립, 자료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의 전반부에서는 조선기계제작소가 1936년에 진행되었던 조선산업경제조사회 이후 조선으로 진출해 193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되는 ‘식민지 공업화’의 상징적 존재가 되는 과정을 다루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자료에 포함된 [주식회사 조선기계제작소 개요]와 [주식회사 조선기계제작소 설비개요] 등을 분석하셨습니다.

발표문을 통해서 조선기계제작소를 둘러싼 당시의 여러 상황과 박물관 소장 자료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발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 속에 나타난 <발표외(發表外)>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료에서 9쪽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식회사 조선기계제작소 설비개요] 중 제2기계공장의 주요 설비 및 사양은 다른 시설과 비교하여 <발표외>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에 선생님께서는 이 <발표외>가 이 시기 조선기계제작소가 이미 제국 차원의 중요 군수공장의 성격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하셨습니다. 또한 자료의 배포처를 정부와 군부 등을 포함하는 관계기관, 주요 수요처로 보셨는데요. 선생님께서 분석하신 ‘제국 차원의 중요 군수공장의 성격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표외로 처리한 것과 관련하여 주요 수요처에 배포하기 때문에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제2기계공장을 발표외로 처리했을 가능성, 주요 수요처 배포가 아닌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군수공장 성격을 가진 제2기계공장을 발표외로 처리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공장 종업원 총 인원 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료의 [주식회사 조선기계제작소 설비개요]에는 주요 시설의 설비 및 사양과 함께 당시 종업원 수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료 속 종업원 수를 선생님의 조선기계제작소를 다룬 논문¹⁾에서 언급하신 1943년 11월 시점의 종업원 수와 상호 비교하기 위해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도	기술자	사무원	공원(工員)	양성공	합계
1941년 10월*	180명	200명	3,000명	300명	3,680명
1943년 11월**	89명	277명	1,881명	395명	2,643명

* 『인천공장 제2차 확장 완성에 의한 총설비 및 사업개요』 수록 자료

** 戰時金融金庫, 『株式會社朝鮮機械製作所ニ関スル別冊調書供御高覽候(1943.11.8)』 수록 자료

표로 정리한 두 시기의 종업원 수를 모두 신뢰한다면, 1943년 10월에는 1941년 10월보다 기술자와 공원이 줄고, 사무원과 양성공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 수 변화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한 기업의 사세가 기울면, 종업원의 수가 이전에 비해 감소할 것을 예상합니다. 조선기계제작소의 경우는 1943년이 잠수함 건조사업을 시작한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업수의 감소가 잠수함 건조를 시작했던 당시의 사세가 기울었던 것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배석만, 『일제시기 조선기계제작소의 설립과 경영(1937~1945)』, 『인천학연구』 10, 2009, p.185

일제강점기 여행자가 그린 인천

윤현진
(한국이민사박물관)

- I. 머릿말
- II. 이시이 하쿠테이의 『그림여행』과 〈인천풍경〉
- III. 우노 이쓰운의 인천도호부관아 일대의 그림들
- IV. 여행자의 '인천그림'에 드러난 식민주의
- IV. 맺음말

I. 머리말

인천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에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화가가 인천을 여행하고 남긴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다. 하나는 근대 일본의 대표적인 서양화가 중 하나인 이시이 하쿠이(石井柏亭, 1882-1951)의 기행문 『그림여행-조선과 중국 편(繪の旅-朝鮮支那の巻)』(이하 『그림여행』)과 유화 〈인천풍경〉, 다른 하나는 조선미술전람회(이하 '조선미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우노 이쓰운(宇野逸雲, 1895-1981)의 인천도호부관아와 인천향교, 관교리 일대를 묘사한 그림이다.

개항, 청일전쟁, 러일전쟁과 같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인천을 방문했던 사진가, 여행가, 종군 화가 등이 남긴 인천을 대상으로 했던 사진과 그림이 다수 전해지고 있다.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이 시기의 시각 자료들은 한반도 진출을 위한 출발지로서 인천을 묘사하고자 했거나, 전황 보도의 목적 혹은 풍속 기록의 목적이 있었다. 1910년 일제의 대한제국 국권 침탈 이후 식민지가 된 한반도로 이주하는 일본인들이 증가하고, 일제가 정책적으로 관광을 장려하면서, 새로운 화제(畫題)를 찾아 조선을 여행하는 일본인 화가 역시 증가한다.

박물관에 소장된 이시이 하쿠테이, 우노 이쓰운의 작품들은 일제강점기 식민지배국의 '여행자'가 화폭에 남긴 인천의 풍경이다. 이들이 그린 인천의 풍경은 일견 평범한 풍경, 산수화로 보이지만 그림에 있어 '식민주의'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된다.¹⁾ 본 발표에서는 각 그림들을 분석하고, 제작 경위를 살펴봄과 동시에 이 그림들이 내포한 식민주의란 무엇인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1) 한국 근대미술에 있어 식민성은 주로 '조선미술전람회'라는 미술 정책, '향토색', '조선색'과 관련된 논의 속에서 고찰이 이루어져 왔다. 본 발표자가 말하는 '식민주의'는 일제가 제국주의적 시선으로 생성해낸 조선의 이미지들과 이를 그림에 구현하고자 했던 일련의 시도들을 뜻한다. 그림에 있어서 '식민주의'에 대한 논점들은 다음의 논문들을 참고했다. 김영나, 「李仁星의 郷土色-민족주의와 식민주의」, 『미술사논단』 9(1999). ; 김이순, 「한국 근대의 '자연주의적' 풍경화에 나타난 이중성: 오지호와 김주경의 1930년대 풍경화를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27, (2013). ; 김정선, 「일본 근대미술의 조선표상(경인문화사, 2022)」. ; 김현숙, 「日帝時代 동아시아 官展에서의 地方色-朝鮮美術展覽會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 12(2004). ; 박계리, 「일제시대 '조선 향토색」, 『한국근대미술사학』 4(1996). ; 신민정, 「일제강점기 일본인 화가에게 있어 '조선적인 것'의 의미-이시이 하쿠테이(石井柏亭, 1882-1958)의 기행서 『그림 여행(繪の旅)』(1921)에 나타난 타자인식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91(2022).

II. 이시이 하쿠테이의 『그림여행』과 <인천풍경>

이시이 하쿠테이의 본명은 이시이 미츠요시(石井滿吉)로, 1882년 도쿄에서 이시이 데이코(石井鼎湖)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초년에는 주로 일본화를 그렸으나 1897년 일본 서양화의 개척자인 아사이 추(淺井忠, 1856-1907) 문하에서 유화를 배우기 시작했다. 1900년에는 동료 화가들과 ‘신일본화 운동’을 추진하였으며, 1904년 도쿄미술학교 서양화과에 입학하여 구로다 세이키(黒田清輝, 1866-1924), 후지시마 다케지(藤島武二, 1867-1943) 등에게 그림을 배우지만 눈병으로 중퇴한다. 1913년 일본수채화회 창립, 1914년에는 이과회(二科會)를 결성한다. 1921년에는 문화학원을 설립하고, 1925년에는 문화학원에 미술학부를 만들어 미술부장을 맡는다. 1928년에는 일본에 프랑스 미술을 소개한 공으로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았다. 1937년 제국예술원 회원이 되었다.²⁾ 이시이 하쿠테이는 화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기도 했지만, 미술교육, 평론, 수필 등의 방대한 저술을 남기기도 했다.

1952년 이시이 하쿠테이 고회기념회에서 발간한 『石井柏亭』 수록 약력을 살펴보면, 이시이 하쿠테이는 20세가 되던 해부터 거의 매년 빼놓지 않고 그림 여행을 떠난다.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조선, 중국, 유럽, 미국을 여행하고 여행지의 풍경과 여행하면서 만난 인물들을 그림으로 남긴다. 이시이 하쿠테이는 평범해 보이는 주변의 풍경과 인물, 자연을 그린 점과 광선의 효과를 통한 명암의 대비, 붓 터치에 분할적 사용 등 인상주의적 화풍을 보인다. 그가 그림을 배운 아사이 추는 풍경화가인 폰타네지(Antonio Fontanesi, 1818~1882)가 일본에서 활동할 때 그에게서 배운 제자로서 바르비종파의 영향이 보이는 향토색 짙은 풍경화들을 그리고 있었다.³⁾ 도쿄미술학교에서 스승이었던 구로다 세이키는 ‘일본적 인상주의’를 의미하는 ‘외광파’ 화가로 이름 없는 들판이나 야산, 강변 같은 주변의 풍경을 밝은 색상으로 묘사했다.⁴⁾

2) 황정수, 『일본 화가들 조선을 그리다』(이숲, 2019), pp. 327-329.

3) 박계리, 앞의 논문, p. 174.

4) 구로다 세이키는 서구 모방을 벗어나 일본만의 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자연 풍경을 그려야한다고 생각했으며, 나아가 이를 통해 자연의 미묘한 변화에 감동하는 일본인만의 정서를 표현하고자 했다. 일본의 자연과 풍경에 대한 찬미는 향토애나 국토애를 고양시켜 일본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며, 이는 서구의 기계적, 인위적, 문명 파괴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자연을 강조한 ‘동양주의’와 맞닿아 있다. ‘동양주의’는 대동아공영 체제를 구축하려는 일본의 제국주의 담론의 하나로 볼 수 있다. - 김이순, 앞의 논문, pp. 125-143.

이시이 하쿠테이는 조선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1918년 여름에는 2개월간 조선에 체류하면서 인천, 경성, 연천, 금강산, 평양 등에서 그림을 그렸으며, 만주를 경유하여 일본으로 돌아갔다. 1920년 봄부터 여름까지 경주, 경성, 연천, 평양 등에서 화제를 구하고, 제7회 이과전에 출품한다. 1930년 초여름에는 조선미술전람회 심사를 위해 조선을 방문하고 목포와 금강산을 그린다.⁵⁾ 1939년 가을에서 겨울 조선을 방문하여 각지를 사색을 위해 여행하고 12월에는 20여 점의 수채화 전람회를 경성 미츠코시백화점 갤러리에서 개최한다.⁶⁾ 1941년에는 만주에 여행하는 길에 평양에 들르기도 한다.⁷⁾

1918~1920년 조선과 중국을 방문했을 때의 기행문 『그림여행』을 1921년 일본평론사출판부에서 발간하였다.⁸⁾ 『그림여행』은 2020년 공개구입을 통해 인천시립박물관에 입수되었다. 크게는 조선과 중국 기행문으로 나뉘어 있고, 조선은 금강산-경성-평양-차탄천-경성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다. 부록으로 조선과 중국 여행자에게 자신의 여행 경험과 함께 교통편이나 숙박을 안내해 여행안내서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책 서두에는 기행문의 순서대로 실은 것으로 보이는 수채화와 유화, 스케치 도판이 수록되어 있다. 『그림여행』에서 인천에 대한 내용은 본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부록의 ‘인천’ 항목에서 인천을 방문하게 된 경위와 교통편, 여행기록이 짧게 적혀있다.⁹⁾ 이 글에 따르면 이시이 하쿠테이는 경성에 머물 당시 인천에 친구와 일가가 있어 몇 번 방문했고, 인천을 방문했을 때는 축현역에서 가까운 송림리로 불리는 교외에 있는 친구 집에 머물렀다. 그는 인천을 ‘그다지 화취(畫趣)가 있는 도시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평하였지만 월미도에는 다소 ‘화제(畫題)’가 있다고 인천에 대한 인상을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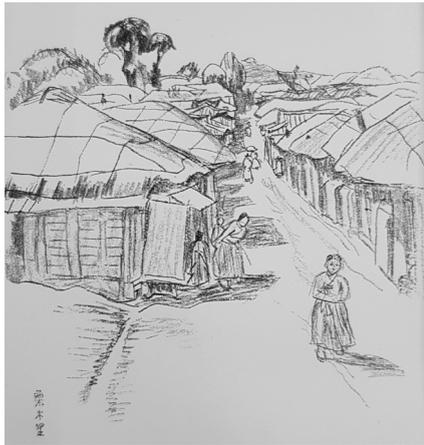
5) 石井柏亭氏古稀紀念會, 『石井柏亭』(美術出版社, 1952), pp. 59-76. ; 『京城の古蹟を保存したいもの, 石井柏亭畫伯語る』, 『朝鮮新聞』, 1930.5.11.

6) 『石井柏亭氏來城』, 『京城日報』, 1939.10.5. ; 『石井柏亭氏木浦を描く』, 『朝鮮新聞』, 1939.10.25. ; 『石井柏亭水墨展, 二日から三越に出陳』, 『京城日報』, 1939.12.1. ; 『石井柏亭の日本畫個展』, 『朝鮮新聞』, 1939.12.5.

7) 『朝鮮雜感』, 『朝鮮新聞』, 1941.1.12.

8) 石井柏亭, 『繪の旅-朝鮮支那の卷』(日本評論社出版部, 1921), pp.9-10. ; 신민정은 논문에서 이 책의 구성을 분석하고 금강산, 경성기행, 기생의 묘사를 통한 식민 지배자의 시선과 식민지의 표상을 분석하였다. 신민정, 앞의 논문, pp.25-46. 참조 ; 한편 이시이 하쿠테이는 1906년부터 쓰기 시작한 기행문을 모아 『그림여행-일본내지편(繪の旅-日本内地の卷)』을 발간하기도 했다. 石井柏亭, 『繪の旅-日本内地の卷』(日本評論社出版部, 1921).

9) 石井柏亭, 위의 책, 『부록』, pp. 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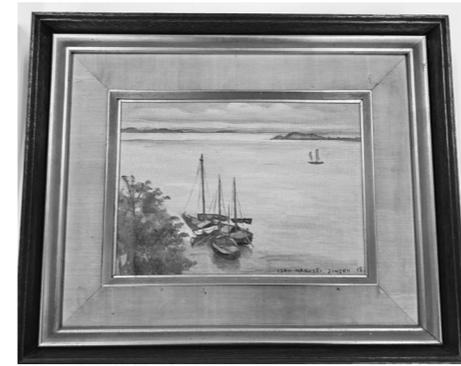
도1. 이시이 하쿠테이, <인천의 어느 마을>

도2. 이시이 하쿠테이, <인천근교>

책에는 <인천의 어느 마을(仁川の或町)>이라는 제목으로 ‘울목리(栗木里)’ 스케치와 <인천근교(仁川近郊)>라는 제목의 초가집이 있는 언덕을 묘사한 풍경화가 흑백으로 수록되어 있다.(도 1·2) 이시이 하쿠테이가 ‘화제’가 있다고 평가한 월미도의 풍경은 2020년에 공개구입 했던 유화 <인천풍경>에 남아있다.(도3) 가로 32cm, 세로 23cm의 작은 화폭의 유화로, 전경 하단에는 잎이 무성한 나무와 3척의 돛단배가 위치해 있고, 중경에는 돛단배 1척과 바다, 멀리는 섬이 배치되어 있는 구도로 하늘에는 구름이 낮게 깔려 있다. 화면 왼쪽 하단 ‘ISHII HAKUTEI, JINSEN, 18’이라는 서명이 있어 작가와 그린 장소, 연대를 추정케 한다. 이 그림에 묘사된 풍경은 월미산에서 김포와 강화도 방향을 바라 본 장면으로 추정된다. 이는 같은 장면을 그린 판화에서 분명하게 확인 할 수 있다. 이시이 하쿠테이가 그린 『일본풍경판화(日本風景版畫)』 제8집 「조선 편(朝鮮之部)」에는 총 5점의 판화가 수록되어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월미도에서 인천과 한강하구를 조망하다(月尾島より仁川及び漢江河口を望む)” 제목이 기입된 작품이다.¹⁰⁾ (도 4) 이 판화는 인천시립박물관 소장의 <인천풍경>과 동일한 소재, 구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화면에 서명대신 ‘仁川’이라는 글씨를 좌측 하단에 남기고 있다.¹¹⁾

10) 『日本風景版畫』 제8집 「朝鮮之部」(日本風景版畫會, 1918.)

11) 황정수의 책에 같은 소재와 풍경을 그린 수묵담채화가 소개된 바 있다. 황정수, 앞의 책, p. 351.



도3. 이시이 하쿠테이, <인천풍경>, 1918년, 캔버스에 유채, 23×32cm, 인천시립박물관



도4. 이시이 하쿠테이, <월미도에서 인천과 한강하구를 조망하다>, (출처: 『일본풍경판화』 8, 「조선 편, 일본풍경판화회, 1918.)

『그림여행』에서 언급된 ‘인천에 친구와 일가’는 니혼장유(日本醬油)를 설립한 모기(茂木) 가문으로 추정된다. 이시이 하쿠테이는 경성에 머무는 동안 유명한 요리집인 명월관을 자주 방문했는데, 인천의 모기 씨와 동행했다는 내용을 적기도 했다.¹²⁾ 한편, 『石井柏亭集(中)』에 수록된 도판 중 <송도부감(松島俯瞰)>(1921)은 모기 와사부로(茂木和三郎, 1880년생)가, <모기씨상(茂木氏像)>은 모기 게이자부로(茂木啓三郎, 1862년생)가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¹³⁾ 모기 와사부로는 일본장유주식회사 전무이사였으며, 모기 게이자부로는 이사였다.¹⁴⁾ 이시이 하쿠테이가 인천 여행 시 머문 친구의 집이 ‘송림동’에 있었다는 기술과 일본장유주식회사의 위치가 송림동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시이 하쿠테이는 모기 가문과 친밀한 관계였을 것이다. 아울러 모기 와사부로는 제1회 조선미전 서양화부에 <초여름의 인천(初夏の仁川)>을 출품했던 인물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 모기 와사부로의 조선미전 출품은 1회에 그쳤지만 <봉래정(蓬萊町)>을 1937년 『매일신보』에 게재하기도 한다.¹⁵⁾ 즉 지역의 유지이자 화업에 관심이 있던 모기 와사부로나 일본 서양화단의 중진이었던 이시이 하쿠테이가 화업에 있어서도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모기 와사부로나 이시이 하쿠테이가 인천 미술계에 지속적인 영향 관계가 있었는지는 향후 확인이 더 필요할 것이다.

12) 石井柏亭, 앞의 책, p. 35.

13) 石井柏亭, 『石井柏亭集 中』(平凡社, 1932)

14) 『朝鮮銀行會社要錄』(東亞經濟時報社, 1921)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참조 ; 일본장유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손장원, 「비문자 자료로 본 인천⑦, 조선 최대의 송림동 간장공장 니혼장유, 노다장유가 되다, 『박물관 풍경』 52(2021) 참조

15) 「カット…蓬萊町…茂木和三郎氏筆, 『毎日申報』, 1937. 4. 23.

Ⅲ. 우노 이쓰운의 인천도호부관아 일대의 그림들¹⁶⁾

우노 이쓰운은 충주와 경성에 거주하며 조선미전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재조선 일본인 화가로써 본명은 우노 사타로(宇野佐太郎, 1895-1981)이다.¹⁷⁾ 우노 이쓰운의 출생지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는데, 선천적으로 청각 장애가 있어 말을 하지 못하였다. 필담으로 이루어진 우노 이쓰운의 인터뷰에 따르면, 13세부터 스즈키 쇼넨(鈴木松年, 1848-1918), 다케우치 세이호(竹内栖鳳, 1864-1942)와 같은 교토화단의 화가들로부터 그림 수업을 받았다. 1922년 1월 조선으로 건너와 충주에 화방을 차리고 같은 해 5월에 개최된 제1회 조선미전에 출품한 이래 1944년에 개최되었던 제23회 전람회까지 출품하였다. 단, 5회에서 9회까지는 조선미전에 출품하지 않았는데, 이는 1926년 충주에서 경성으로 정착했던 것이 이유가 아닐까 한다.¹⁸⁾ 한국에서는 경성에서 사진관을 경영하며 사숙을 열었던, 교토화파의 화가인 시미즈 도운(清水東雲, 1869?-1929?)의 지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이 해방되자 교토로 돌아가 일본화를 그리는 화가로 활동하였다.¹⁹⁾



도5. 우노 이쓰운, <관교리복원도>, 1920-40년대 전반, 종이에 수묵, 75×169.5cm, 인천시립박물관

- 16) 본 발표문에서 우노 이쓰운의 그림에 대한 내용은 윤현진, 「우노 이쓰운(宇野逸雲)의 조선명소 그림과 <구 인천부사청사복원도>」, 『한국근현대미술사학』 45(2023)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 17) 우노 이쓰운의 활동 사항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황정수, 앞의 책, pp. 583-596. / 강민기, 「근대 전환기 한국화단의 일본화 유입과 그 수용 : 1870년대에서 1920년대까지」(홍익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p. 152.가 있다.
- 18) 「鮮展を前にアトリエの匂ひ(四), 一本の彩管に生命を捧げ只一途精進する, 不運の人……宇野氏」, 『朝鮮新聞』(1926. 4. 21). / 「秋の美術期にアトリエを廻る(10), 吼えざる『獅子』, 宇野逸雲畫伯の惱み」, 『京城日報』(1932. 10. 7).
- 19) 황정수, 앞의 책, pp. 583-596. / 강민기, 앞의 논문, p.152.



도6. 우노 이쓰운, <구 인천부사청사복원도>, 1920-40년대 전반, 직물에 수묵채색, 66×85.5cm, 인천시립박물관
 도7. 우노 이쓰운, <문학향교도>, 1920-40년대 전반, 직물에 수묵채색, 66.1×84.5cm, 인천시립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에는 우노 이쓰운의 그림이 세 점 소장되어 있다. <관교리복원도(官教里復原圖)>, <구 인천부사청사복원도(舊仁川府使廳舍復原圖)>, <문학향교도(文鶴鄉校圖)>가 그것이다.²⁰⁾ (도5·6·7) 이 그림들은 인천향토관에 소장되었던 것을 1946년 4월 1일 인천시립박물관이 개관할 당시 이관되었으며, 정확한 제작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다.²¹⁾ 우노 이쓰운은 1922년에 조선에 건너와 일제의 패전 전까지 조선 화단에서 활동했으므로, 제작 시기를 1920년대에서 1940년대 전반으로 넓게 잡을 수 있다. 다만, 1933년과 1934년 『朝鮮新聞』에 게재된 신년화에 사용했던 인장과 <구 인천부사청사복원도>, <문학향교도>에 사용한 인장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점에 있어 아마도 1930년대 이 그림들이 그려지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관교리복원도>는 화면 좌측하단에 “官校里所見 逸雲畫”라는 글씨가 있는 수묵산수화로, 두 폭의 종이를 이어붙인 화면에 인천도호부관아와 인천향교를 그렸다. 관아는 좌측 화면의 근경에 가득 차게 그려 넣어, 건축물과 부속 경물을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향교는 우측 화면 원경 멀리 그려 넣어, 건물의 구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그림에 그려진 인천도호부관아의 배치를 살펴보면, 위로부터 객사-동헌-중문과 같은 청사의 주요 건물이 그려져 있고, 하단에는 부속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다. 객사 서쪽으로는 은행나무 한 그루가 그려져 있

- 20) 본 발표문에서는 그림의 제목을 1946년 유물대장 목록에 기재된 것으로 적는다. 이 세 점의 그림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이라 할 수 있는 대장 상의 명칭이 이 그림들에 대한 성격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21) 인천향토관은 1942년 6월 20일 인천도서관 건물에서 개관하였고, 인천시립박물관은 인천향토관으로 쓰이던 건물에서 개관하였다. 인천향토관의 설립 목적은 “인천을 중심으로 한 사적 고물 또는 기념물을 비치하여 대인천을 영구히 기념키로 한 것”이었다. ; 「인천향토관개관」, 『每日新報』(1942. 6. 19).

다. 화면 가장 하단에는 연못과 지수정이라는 정자, 그리고 역대 부사, 관찰사의 기념비 6기가 그려져 있다.²²⁾

〈구 인천부사청사복원도〉와 〈문학향교도〉는 〈관교리복원도〉와 달리 채색이 가미되었다. 〈관교리복원도〉에서 인천도호부관아는 원경에서 조망하는 구도로 그려졌는데, 이 그림에서는 가까운 거리(좌측면)에서 객사와 동헌, 은행나무를 조망하는 구도로 그려졌다.

인천도호부관아는 조선 초에 축조된 이래 인천 행정의 중심 기관이었다. 개항 후 항만 근처에 감리서가 설치되면서 그 힘이 분산되다가, 1906년 9월 24일 조선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지방통치기구인 이사청이 인천에 설치되면서는 행정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²³⁾ 1914년에는 이 곳이 부천군으로 편입되면서 관아에는 부천군청이 들어선다. 1917년 4월 29일에는 부천공립보통학교가 관아에 개교하여 지금의 문학초등학교까지 이어지게 된다.²⁴⁾ 1920~40년대 전반 인천도호부관아의 구체적인 배치와 모습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화도진도〉에서 그 원형을 추정할 수 있다. 〈화도진도〉는 서울과 가까운 인천도호부와 부평도호부 지역에 적을 막기 위한 육군기지와 포대가 1878년 설치되면서 그려졌다.²⁵⁾ 〈화도진도〉와 〈관교리복원도〉, 그리고 〈구 인천부사청사복원도〉를 비교해보면, 우노 이쓰운이 〈구 인천부사청사복원도〉에서 상상해서 그린 몇 가지 점을 확인할 수 있다.(표1)



표1 객사-내삼문-동헌-중문 표시도

22) 『인천부사』(1933년 발간)에는 인천도호부관아의 연혁과 당시의 용도, 모습 등을 기술하고 있다. “부천군청이 위치했으며, 현재는 부천공립보통학교 교사로 사용되고 있다. 부사가 집무거주했다고 생각되는 청사는 부천공립보통학교 졸업생 지도실로 충당되고 있다. 문밖 우측에는 5개의 공덕비가 있는데 인천부사 모모, 인천관찰사 모모 글씨가 있다. 좌측에는 연지가 있고 정자가 남아있다. …(중략)… 후방 언덕 위에는 공자묘가 있다. 명치15년 事變에 花房 公使가 피난 왔다는 장소가 있다.” ; 仁川府, 『仁川府史』(1933), p. 21.

23)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인천의 발자취』(2002), pp. 477-480.

24) 인천광역시 남구청·인하대학교 박물관, 『문학산의 역사와 문화유적』(2002), pp. 134-135.

25)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화도진도〉 해제 참조. <https://www.nl.go.kr/NL> (최종검색일 : 2023. 5. 26).

세 그림에서 화면에서 가장 좌측 상단에 위치한 객사는 정당을 중심으로 좌우에 익실을 둔 형태는 같으나 건물을 앞한 기단과 기단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모양에는 차이가 있다. 가령, 〈화도진도〉에서 기단의 모양이 ‘凸’자 형태에 계단이 1개라면, 〈구 인천부사청사복원도〉에서는 ‘—’자형 기단에 계단이 3개 그려져 있다. 다음으로 객사 영역으로 들어가는 내삼문의 형태이다. 〈화도진도〉에서는 내삼문이 그려져 있는데, 〈관교리복원도〉에는 내삼문이 그려져 있지 않고, 〈구 인천부사청사복원도〉에는 문이 1개만 있는 문으로 그려져 있다. 그런데, 1913년 경의 모습을 담은 인천도호부관아 사진엽서에는 객사 앞 내삼문이 삼문의 형태로 분명하게 있다.²⁶⁾ (도8) 즉 이 우노 이쓰운은 객사의 내삼문이 소실된 이후 〈관교리복원도〉를 그렸을 가능성이 높다. 〈관교리복원도〉는 수묵으로만 소략하게 스케치풍으로 그려졌다는 점, 관지만 있고 인장이 없다는 점, 직물이 아닌 종이에 그려졌다는 점 등에서 〈구 인천부사청사복원도〉, 〈문학향교도〉 두 점의 그림과 차이를 보인다. 〈관교리복원도〉는 다른 두 그림을 그리기 전 화가의 개인적인 관심 혹은 두 그림을 제작하기 위한 초본으로써 그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관교리복원도〉는 당시의 실제 모습 그대로 내삼문과 외문이 없는 상태로 그리고, 〈구 인천부사청사복원도〉에서는 건축물 구성의 논리를 위해 화가가 상상하여 내삼문을 문이 1개인 형태로 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도8. 〈인천도호부 사진엽서〉, 1913년 경, 화도진도서관



도9. 〈부천공립보통학교 제2회 졸업식 사진〉, 1924년경(출처: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재)국토문화재단 구원 『인천도호부 유적』(2018), p.58.)

앞서 언급했듯이 1914년부터 인천도호부관아는 구청과 학교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1921년에 부천군청이 인천 내동으로 이전하면서 동헌과 객사 모두 학교 건물로 사용되었고,

26) 박만홍·구자린, 『인천도호부의 원 영역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68(2017), p. 398.

군관청 건물에는 파출소가 들어섰다.²⁷⁾ 그림에 묘사된 객사와 동헌은 건물 상단 중앙에 현판이 있는 조선 관아의 모습이지만 1924년에 객사 앞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2회 부친공립 보통학교 졸업사진을 보면 이미 현판은 사라지고, 열주 사이를 벽과 창으로 막아 교사로써 활용하기 편리하게 개조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도9) 그러나, 우노 이쓰운은 객사를 전통적인 조선 관청 건물의 모습으로 재현하고 있다. 따라서 우노 이쓰운은 부친공립보통학교로써 활용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아닌 과거 인천도호부관아의 원형을 상상해서 그렸음을 추정할 수 있다. 비록 <구 인천부사청사복원도>가 그려진 시기를 넓게 1920년대부터 1940년대 전반으로 비정한다고 해도, 이미 1910년대부터 군청과 학교로 사용되던 건물은 1920년대에는 사용하기 편하게 개조되었을 것이며, 이는 1924년 졸업사진이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그림은 조선시대 도호부관아를 상상해서 그린 ‘복원도’인 것이다.²⁸⁾

인천향교 역시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부친향교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부평향교도 부친군으로 편입되어 부친군에는 2개의 향교가 존재하게 되었다. 당시의 인천부윤 나가이 데루오(永井照雄)는 부친군에 2개의 향교는 불필요하다고 해서 부평향교에만 향교의 기능을 남겨두어 인천향교에는 빈 전각만 남게 되었다.²⁹⁾ 인천향교의 배치와 모습은 <화도진도>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1914년부터는 그 기능을 상실했던 탓인지 사진 자료나 인천안내서에서는 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향교의 건물 배치가 <화도진도>, 우노 이쓰운의 <문학향교도>, 인천향교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대성전 경내로 들어가는 삼문이 <화도진도>에서는 그려져 있으나, <문학향교도>에서는 1개의 문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더욱이 1946년 유물대장에 <문학향교도>에만 ‘복원도’라고 명명되지 않아 인천향교의 모습은 실제의 모습과 그림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27) 배성수, 「인천의 자화상—울타리에 간혀있는 제1호 문화유산」, 『인천in』(2021. 4. 13).

28) 우노 이쓰운이 옛 관아의 모습을 어떤 자료를 참고하여 그렸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당시의 모습과 다른 복원된 부분은 현판과 열주 사이에 위치한 벽면·창호의 모습이다. 본 연구자는 우노 이쓰운이 객사의 모습을 ‘일반적인’ 조선 건축에서 차용하여, 화가가 ‘상상’해서 재현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29) 인천광역시 남구청·인하대학교 박물관, 앞의 책, pp. 135-136.

IV. 여행자의 ‘인천그림’에 드러난 식민주의

앞서 이시이 하쿠테이와 우노 이쓰운의 ‘인천그림’들을 분석하고 관련 자료들을 통해 그 제작 경위를 유추해보았다. 이시이 하쿠테이는 일본 서양화단의 지도적 위치에 있던 인물로서 몇 차례의 조선 방문했던 ‘여행자’였으며, 2차례에 걸쳐 조선미전의 심사위원이었다. 우노 이쓰운은 주로 조선미전 동양화부 출품을 통해 활동했던 ‘재조선 일본인 화가’였다. 그 배경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이 두 화가의 ‘인천그림’에는 소재 선택에 있어 ‘식민주의’가 드러난다고 생각된다. 이 장에서는 그들의 그림에 드러난 ‘식민주의’ 해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지방 혹은 경성 시내 민가의 형식, 그리고 성 아래의 모습을 보면 헤이안 조(平安朝) 시대의 것을 실로 능히 연상시킨다. 회권물(繪卷物) 같은 것을 펼쳐 보는 것 같은 재미있는 느낌이다. 실로 천년 전후 일본의 오랜 생활상태를 현실에서 볼 수 있어 아주 좋은 견학이었다고 생각한다. ... 크게 보면 뭐랄까 수면 상태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어떤 곳에서도 미소한 활동도 보이지 않는다.”³⁰⁾

“조선에 있어서는 조선의 미술을 발달하도록 노력치 아니하면 불가하니 작년 불란서의 ‘마르세이유’에서 동국(同國)의 식민지박람회(植民地博覽會)가 있어 ‘알제리아’, ‘지니스’, 인도·중국(印度·支那) 기타 각지의 식민지 산업, 풍속, 관습, 미술 등을 전람하여 그 발달을 장려·보호하여 그 특색의 발휘를 조장케 하기에 노력함을 보고 크게 느낀 바가 있었노라. 조선에서도 그 의미로 심히 조선 고유한 자의 보존과 그 특장(特長) 발휘에 충분한 원조를 위함이 가하다 생각노라.”³¹⁾

첫 번째 글은 제1회 조선미전 서양화부 심사위원 오카다 사부로스케(岡田三郎助)의 서술이고, 두 번째 글은 제2회 조선미전 서양화부 심사위원 와다 에이사쿠(和田英作)의 발언이다. 문화통치 수단의 하나로써 조선총독부가 1922년부터 개최하기 시작한 조선미전의 제1회, 제2회 심사위원의 발언은 조선 화단의 하나의 지침이 되기에 충분했다. 오카다 사부로스케는 조선은

30) 岡田三郎助, 「入朝後の感想」, 『朝鮮』 88(1922.7.), pp.5-14. 中村義一, 「臺展, 朝鮮と帝展」, 『京都教育大學紀要』A(人文·社會) 75(1989), p. 265. ; 김현숙, 앞의 논문, p.79.에서 재인용

31) 「藝術과 朝鮮 - 朝鮮에는 純朝鮮 것을 發達케 하라, 和田(英作) 審査員 談」, 『每日新報』(1923.4.26.) ; 김현숙, 앞의 논문, p. 63.에서 재인용

방문하고 조선의 모습을 아직 ‘수면 상태’에 있으며, 천년 전의 일본의 과거를 볼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다고 평가한다. 와다 에이사쿠는 조선의 미술은 아직 발달하지 않았는데, 그 발달을 위한 노력의 방향을 프랑스 식민지에서 고유한 특색을 유지하는 것처럼 조선도 그 고유한 특색을 보존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식민지 조선의 ‘현재’는 일본의 ‘과거’이며, 그 조선의 특색은 ‘보존’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일선동조론’을 주장하는 일본의 식민주의와도 맞닿아 있다.”³²⁾

일생을 화제를 찾아 여행했던 이시이 하쿠테이의 일련의 ‘인천그림’들은 평범한 자연과 인물을 소재로 삼은 인상주의 화가의 면모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발전되지 않은 ‘과거’의 모습과 조선의 특색, 즉 ‘조선색’이 보존된 장면으로도 해석된다. 초가집이 늘어서 있는 골목의 풍경, 머리에 물동이를 인 조선 여인의 모습은 ‘조선색’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소재들 중의 하나였다. 『그림여행』에서 이시이 하쿠테이는 광화문 가운데 서양식 총독부 건물이 들어서는 것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거나,³³⁾ 강화도에는 조선 최고의 축조물로 칭해지는 참성단이 있고, 아직 고려조 이래 건조물이 수 여럿 있어, 고고학자 이외에도 재미있는 곳일지 모른다고 언급하였다.³⁴⁾ 개성에서는 만월대, 선죽교뿐만 아니라 남북을 관통하는 냇가에 늘어진 집들이나 흰 옷을 입은 여성의 무리들, 산의 조망 화취를 찾았다.³⁵⁾ 경성을 “내지인이 상상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도시이며, 본정을 통하는 오사카를 모방한 점차 내지화 되어가는 나쁜 점이 있지만, 아직 경성의 대부분은 조선다움을 보존하고 있다.”³⁶⁾라고 적기도 했다. 이 글들로 미루어 그가 생각하는 조선다움은 조선의 전통 건조물, 냇가에 늘어진 집들의 형태, 흰 옷을 입은 여성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그는 조선총독부 건물이 광화문 가운데 들어서는 것이나 오사카

32) 조선의 ‘고대성’에 대한 언급은 1913년 조선을 방문한 화가 후지시마 다케지가 “조선은 모든 점에서 고래로부터 별다른 변화와 진보가 없기 때문에 원색의 조선 여인의 복장에도 고대의 面影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한 점이나 조선총독부 축탁으로 민속연구를 하던 이마무라 도모에(今村鞠)가 “고대의 日鮮은 민족적, 사회적, 역사적으로 동일하고 그 예전 모습이 조선에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데에는 아주 손쉽게 다다를 수 있는 장점과 편함이 있다”고 한 점에서도 드러난다. 김영나, 앞의 논문, pp.198-199. ; 김현숙은 그의 논문에서 근대 서구인이 그린 일본 풍경은 “서양=근대사회/일본=자연”이라는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을 반영하였으며, 일본은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을 ‘일본=근대사회=도시/식민지=지방=자연’이라는 구도를 일본 제국주의와 식민지 국가에 적용하였다고 하였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지방과 식민지로서의 지방이 동질의 것으로 취급된 것은 아닌데, 일본의 자연(지방)은 온화하고 고결한 천혜의 낙원으로 인식되고 표상된 반면, 식민지의 경우 도시와 자연의 구분법은 통용되지 않고 식민지 전체가 지방이자 자연으로 취급되었다고 분석하였다. 김현숙, 앞의 논문, pp. 55-56.

33) 石井柏亭, 앞의 책, pp.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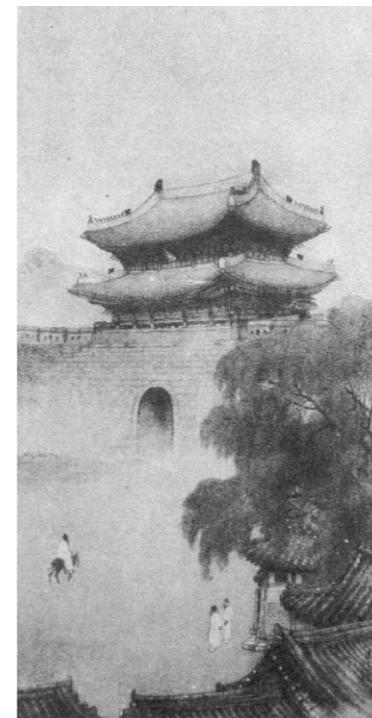
34) 石井柏亭, 앞의 책, 『附錄』, p. 10.

35) 石井柏亭, 앞의 책, 『附錄』, pp. 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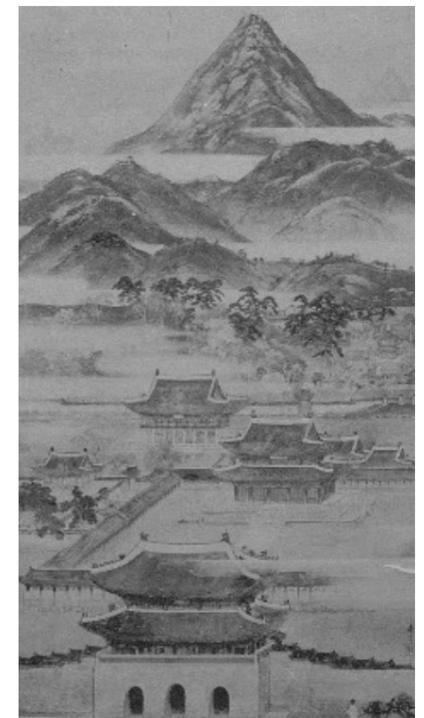
36) 石井柏亭, 앞의 책, 『附錄』, p. 10.

처럼 근대화 되어가는 경성의 모습에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오카다 사부로스케나 와다 에이사쿠의 언급으로 미루어 볼 때 이것은 전통을 잃어가는 조선에 대한 안타까움보다는 일본의 고대 모습을 잃어가는 식민지 조선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읽힌다.

유화 〈인천풍경〉은 이미 근대 항만 설비와 건축물이 늘어난 인천항 인근에서 가장 한가로운 바닷가의 풍경을 전근대적인 돛단배를 묘사하여 그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천풍경〉과 같은 장면이 『일본풍경판화』에 실려 있다. 『일본풍경판화』는 일본풍경판화회에서 1917-1918년 2년간 총 8권으로 발간한 판화집이다. 이 중 이시이 하쿠테이는 1권 ‘北陵之部’, 4권 ‘下總之部’, 8권 ‘朝鮮之部’의 그림을 그렸다. 『일본풍경판화』는 일본 풍경 중에서도 옛 모습을 간직한 풍경 위주로 그려졌다. 특히 7권이 ‘琉球之部’라는 점이 시사적인데, 현재 오키나와 섬에 위치했던 류큐는 독자적인 왕국이었으나, 1879년에 일본에 편입되었다. 『일본풍경판화』의 구성 자체가 ‘구’일본 영토에 ‘신’일본 영토를 편입하여, 시각적으로 일본 식민주의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일본의 옛 모습과 류큐, 조선의 옛 모습을 연속적으로 실어 ‘일선동조론’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추정케 한다.



도10. <송례문 촌소>, 1923년(출처: 『제2회 조선미술전람회도록』)



도11. <서조>, 1936년(출처: 『제15회 조선미술전람회도록』)

아울러 우노 이쓰운의 ‘인천도호부관아’ 그림이 1930년대의 그려졌을 가능성과 화가가 원래의 모습을 상상하여 그렸을 가능성을 앞서 설명하였다. ‘복원’이라는 재현 방식은 우노 이쓰운이 조선미전에 출품했던 <숭례문춘소(崇禮門春宵)>와 <서조(瑞兆)>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도 10·11) 우노 이쓰운이 제2회 조선미전 출품했던 <숭례문춘소>는 일견 경성의 관문이자 상징이었던 평범한 숭례문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우노 이쓰운은 그림이 출품된 1923년의 숭례문의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닌, 훼손되기 이전의 숭례문의 모습을 담았다. 제15회 조선미전에 출품되었던 <서조>는 경복궁을 조감한 시점에서 그린 그림이다. 광화문에서 근정전, 사정전과 만춘전, 아미산, 수정전, 경회루, 향원정까지 이어지는 경복궁 일대를 왼쪽에서 비스듬히 내려다보는 구도로 그렸는데, 이 역시 출품되었던 1936년의 경복궁 모습이 아닌 광화문이 철거되기 이전인 1926년 이전의 모습을 그렸다.

그렇다면 우노 이쓰운은 왜 인천도호부관아 일대를 선택해서 복원이라는 방법으로 소재를 재현했을까? 1920-30년대 월미도나 인천항 근처의 근대적 시설과 거리에 비해 이 일대는 여행자의 주목을 끄는 장소는 아니었다. 이 시기 발행되었던 여행안내서들을 살펴보면 인천도호부관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안내서에는 소개되지 않았다. 한편, 경성을 중심으로 인천·개성·수원을 소개하는 안내서에는 문학산 또는 미추홀성지 항목에 관아와 향교가 소개되었다. 그런데 ‘인천부세일반’과 같은 인천만을 대상으로 한 안내서에는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공사가 인천도호부관아에 피난 시 머물렀던 장소가 소개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³⁷⁾

한편, 1930년대에는 일제가 이 일대를 관광지로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을 위해 인천부 행정구역이 확장되면서 1936년 9월 26일에 공포된 인천부령 제93

37) 본 발표자가 확인 바는 아래와 같다.

안내서 제목	발행처	연도	관교리 관련 내용
朝鮮旅行案内記	조선총독부철도국	1934	-
경성, 개성, 인천, 수원	조선총독부철도국	1927	‘미추홀성지’ 항목 있음 관교리 관련 내용 없음
仁川と京城	大陸新聞社	1929	‘문학산’ 항목에 관교리 내용 수록 하나부사 피난 관련 내용 없음
경성, 인천, 수원, 개성	조선총독부철도국	1938	‘문학산’ 항목 있음 관교리 관련 내용 없음
仁川府勢一斑	인천부	1933	‘문학산’ 항목에 관련 내용 수록 하나부사 피난 관련 내용 수록
仁川府勢一斑	인천부	1939	‘문학산’ 항목에 관련 내용 수록 하나부사 피난 관련 내용 수록

호에 따라 관교리를 포함한 문학산 일대가 다시 인천부에 편입되었다.³⁸⁾ 아울러 1930년대 평양, 경주, 부여 등의 고도와 수원, 개성 등이 관광산업을 경쟁적으로 돌입하자, 인천부는 ‘관광인천’을 부시(府是)로 들었다. 1936년 3월에 진행된 인천부 부회에서 인천부윤 나가이 테라오는 “문학산을 중심으로 45만평의 풍치를 살려 관광인천의 형성에 힘쓰겠다. 그러기 위해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³⁹⁾라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인천부 의원이자 『인천부사』 저자인 고다니 마스지로(小谷益次郎)는 1938년의 「인천의 관광사업론(仁川の觀光事業論)」이라는 글에서 자연에 다양한 인문적 요소가 풍경과 융합되고 각종 시설이 설치된 후 비로소 경승지의 가치가 발휘될 것이며, 문학산 일대를 보안림으로 지정하고 삼국시대 백제 발상지를 보호하는 한편, 산기슭 관교리의 하나부사 공사 조난 유적을 보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⁴⁰⁾ 즉 관교리 일대는 인문학적 요소가 담긴 자연풍경으로써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특히 인천도호부관아 주변 하나부사 피신 장소를 명소로써 조성하려는 시도가 있었다.⁴¹⁾ 그러나 문학산 일대 관광지 조성 시도는 중일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별다른 진전이 없이 끝났다.

비록 <구 인천부사청사복원도>의 정확한 제작 시기를 비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본 발표자는 우노 이쓰운이 <구 인천부사청사복원도>를 그렸던 혹은 인천에 소장되었던 이유가 이 일대의 관광지 조성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신문 기사 등을 통해 이 지역이 주목되기 시작하면서 우노 이쓰운이 스스로 이 일대를 주목했거나, 혹은 지역 유지들이 역사적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고건축 그림이나 조선 인물들의 그림에 특기가 있었던 우노 이쓰운에게 그림을 부탁했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우노 이쓰운 개인적인 관심으로 그려놓았던 그림을 인천부에서 수집했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1936년 1월에는 인천도서관을 시가 중심으로 이전하고, 도서관 내에 박물관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박물관 설립 목적은 일차적으로 러일전쟁 인천 해전의 기념물을 보존 수집하고 역사를 영구하게 남기는 것이었다.⁴²⁾ 따라서 인천에

38) 문순희·박진한, 『사진엽서와 안내서로 만나는 인천의 명소와 근대관광』(인천연구원, 2018), p. 123.

39) 『경성일보』(1936. 3. 28). ; 문순희·박진한, 앞의 책, p. 115.에서 재인용 / 아울러 『동아일보』 1936년 3월 20일자 기사 『觀光仁川建設目標로 五百萬坪의 大遊園地, 富川郡文鶴山을 中心으로 拔群의 美化工作實施』에서도 문학산 일대 대유원지 건설에 대한 내용이 실려있었다. ; 김영수, 「1920~1930년대 인천의 ‘관광도시’ 이미지 형성 -‘인천 안내서’를 중심으로-」, 『인천학연구』(인천학연구원, 2005), p. 105에서 재인용

40) 문순희·박진한, 앞의 책, pp. 124-125.

41) 하나부사 공사의 피난에 대한 일제의 역사적 기념은 문학초등학교 인근 공사장에서 발견되어 현재 인천시립박물관에 소장된 <花房公使遭難碑> 비석에서도 엿볼 수 있다.

42) 『仁川圖書館市街地移轉, 港都歷史蒐集博物館併設計畫』, 『京城日報』(1936. 1. 23).

있어 1936년은 인천부역의 확장과 더불어 문학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 조성, 박물관 설립에 대한 관심 환기 등에 의해 인천의 역사적 유적과 전시품의 수집에 관심이 촉발되던 시기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노 이쓰운의 그림은 인천향토관에 소장되었으므로, 193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전반의 시기 어느 때인가 그림이 제작 또는 수집되어 인천부민에게 전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노 이쓰운의 인천도호부관아 일대 그림 제작 의도는 이시이 하쿠테이의 ‘인천그림’들과 흐름을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 즉 조선의 고유한 특색을 ‘보존’함으로써 일본의 ‘과거’를 조선의 ‘현재’에서 찾는 미술에 있어서의 ‘식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IV. 맺음말

근대적 모습을 담은 수많은 사진 자료와 달리 인천을 여행한 두 화가는 유명한 장소가 아닌 평범한 마을과 자연의 모습, 도호부의 옛 마을을 그렸다. 일견 평범한 그림으로 보이지만 화단의 식민지적 재편 속에서 이 그림들의 ‘식민주의’적 측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물론 화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소재를 선택했을 수 있다. 우노 이쓰운은 작화 의도에 대한 기사가 적고, 스스로 남긴 글이 확인되지 않아 화가 개인의 화업에 대한 생각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시이 하쿠테이는 방대한 저술과 인터뷰가 남아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⁴³⁾ 그러나 개인의 작화 의도와는 별도로, 이시이 하쿠테이는 제9회, 제11회 조선미전 심사위원 이었으며, 문화학원의 교수였다는 점, 우노 이쓰운은 조선미전에 꾸준히 출품하면서 활동했다는 점이 식민지 미술의 구도 속에서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포섭되기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시이 하쿠테이의 『그림여행』은 여행자와 화가들의 안내서로 영향을 끼쳤을 것이며, 우노 이쓰운의 ‘인천도호부관아’ 그림은 인천향토관에 소장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그 이미지가 각인되고 공유되었을 것이다.

43) 실제로 이시이 하쿠테이가 1923년 파리에서 연 전시회 도록 서문에는 지방색은 의도와는 상관없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며, 작화 시 형태의 정확성과 색채의 적합이 쾌감을 준다는 순수미술론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유럽 여행 시 유럽의 다양한 풍경도 그림으로 남겼다. 이 역시 평범한 마을과 소박한 자연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石井柏亭, 「自序」, 『石井柏亭畫集』(アトリエ社, 1925).

〈참고문헌〉

『朝鮮新聞』
『京城日報』
『每日申報』

大陸情報社, 『仁川と京城』, 1929.
石井柏亭, 『日本風景版畫 8 - 朝鮮之部』, 日本風景版畫會, 1918.
石井柏亭, 『繪の旅 - 朝鮮支那の巻』, 日本評論社出版部, 1921.
石井柏亭, 『石井柏亭畫集』, アトリエ社, 1925.
石井柏亭, 『石井柏亭集中』, 平凡社, 1932.
石井柏亭氏古稀紀念會, 『石井柏亭』, 美術出版社, 1952.
仁川府, 『仁川府勢一斑』, 1933.
仁川府, 『仁川府史』, 1933.
仁川府, 『仁川府勢一斑』, 1939.
朝鮮總督府鐵道局, 『京城 開成 仁川 水原』, 1927.
朝鮮總督府鐵道局, 『朝鮮旅行案内記』, 1934.
朝鮮總督府鐵道局, 『京城 仁川 水原 開成』, 1938.

강민기, 「근대 전환기 한국화단의 일본화 유입과 그 수용 : 1870년대에서 1920년대까지」, 홍익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김영나, 「李仁星의 郷土色 - 민족주의와 식민주의」, 『미술사논단』 9, 1999.

김영수, 「1920~1930년대 인천의 ‘관광도시’ 이미지 형성 - ‘인천 안내서’를 중심으로 -」, 『인천학연구』, 인천학연구원, 2005.

김이순, 「한국 근대의 ‘자연주의적’ 풍경화에 나타난 이중성: 오지호와 김주경의 1930년대 풍경화를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27, 2013.

김정선, 『일본 근대미술의 조선표상』, 경인문화사, 2022.

김현숙, 「日帝時代 東아시아 官展에서의 地方色 - 朝鮮美術展覽會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 12, 2004.

문순희 · 박진한, 『사진엽서와 안내서로 만나는 인천의 명소와 근대관광』, 인천연구원, 2018.

박계리, 「일제시대 ‘조선 향토색」, 『한국근대미술사학』 4, 1996.

박만홍 · 구자린, 「인천도호부의 원 영역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68, 2017.

배성수, 「인천의 자화상-울타리에 간혀있는 제1호 문화유산」, 『인천in』, 2021. 4. 13.
 신민정, 「일제강점기 일본인 화가에게 있어 '조선적인 것'의 의미-이시이 하쿠테이(石井柏亭, 1882-1958)의 기행서 『그림 여행(繪の旅)』(1921)에 나타난 타자인식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91, 2022.
 손장원, 「비문자 자료로 본 인천⑦, 조선 최대의 송림동 간장공장 니혼장유, 노다장유가 되다」, 『박물관 풍경』 52, 2021.
 윤현진, 「우노 이쓰운(宇野逸雲)의 조선명소 그림과 <구 인천부사청사복원도>」, 『한국근현대미술사학』 45, 2023.
 인천광역시 남구청 · 인하대학교 박물관, 『문학산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2.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인천의 발자취』, 2002.
 황정수, 「일본 화가들 조선을 그리다」, 이숲, 2019.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화도진도> 해제(최종검색일 : 2023. 5. 2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최종검색일 : 2023. 10. 4.)

본 발표에서 윤현진 선생님은 일본인 화가 이시이 하쿠테이와 우노 이쓰운이 그린 인천 풍경의 내용과 조형적 특징을 살펴보고, 해당 그림의 제작 배경과 제작 경위를 식민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셨습니다.

발표문에서 밝히고 계신 것처럼, 개항 이후 일본의 많은 예술가가 조선을 찾아 풍경과 풍속을 묘사했습니다. 특정 지역을 그린 그림은 화가 개인의 창조적 생산물인 동시에, 해당 장소에서 화가가 눈으로 흡수한 경험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각 자료로서 중요성과 가치를 지닙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조선을 소재로 한 일본 화가의 그림은, 자료의 빈곤, 사료적 한계로 그 구체적인 면모를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발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신 우노 이쓰운의 경우만 봐도, 자타가 공인하는 업적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관에서 매입한 작품의 존재 유무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¹⁾ 이러한 점에서, 선생님의 연구를 통해 인천시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의 존재가 소개되고 논의된 것은 귀중한 학문적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국내 연구가 미비한 이시이 하쿠테이와 우노 이쓰운의 활동과 작품을 조명하시고, 특히 '인천'이라는 공간을 소재로 한 제작에 주목하여 논지를 전개하신 점은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각 제작에 깃든 식민주의의 기표를 읽어내신 점 역시, 다른 분야에서 진행되어 온 식민지 표상 연구들과 통합적 의미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지닙니다. 관련 연구 지평의 확장을 위한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간단한 질문을 전하고자 합니다.

1. '여행자'의 풍경, '정주자'의 풍경 : 화가의 정체성과 시선

선생님께서 발표문에서 '내지의 여행자'인 이시이 하쿠테이와 '재조선 일본인 화가'로 활동했던 우노 이쓰운의 입장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시고, 이러한 상반된 성격의 두 화가로부터 소재 선택의 '식민주의적 시선'이라는 공통점을 도출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한 조선 표상을 식민주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보편성과 타당성

1) 문순희 · 박진한, 『사진엽서와 안내서로 만나는 인천의 명소와 근대관광』(인천연구원, 2018), p. 123.

이 담보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특정 지역의 풍경을 포착하고 그리는 배경과 과정, 그 의도와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내지의 여행자’와 ‘조선 정주자’라는 두 화가의 입장과 정체성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아도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이시이와 우노는 일본인이라는 민족적 공통성을 지니지만, 활동 반경이나 활동 영역에 있어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화가들입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과 조선 화단의 ‘위계적 구조’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한 내지의 화가와 달리, 우노와 같은 이른바 재조선 일본인 화가는, 외지 화단을 견인하는 선구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지에서는 ‘지방’의 ‘무명 화가’에 불과한 주변적 존재로, 내지에 대한 경쟁의식과 열등감, 외지에 대한 우월감이 착종된 복합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²⁾

이와 같은 정체성은 당시 조선 화단의 주요 논점이었던 ‘조선 향토색’ 표현과도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재조선 일본인 화가들은, 조선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자신들만이 여행자의 눈으로는 결코 포착할 수 없는 조선의 독특한 정취를 그림에 담아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³⁾ 물론 우노는 일본에서 전문적인 일본화 교육을 받고 일본화의 정통적인 표현 기법을 고수한 조선미술전람회의 중심 화가였다는 점에서, 조선에서 나고 자란 ‘이민자’ 출신의 재조선 일본인 화가와 그 입장이나 조선 인식에서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선 정주자로서 우노의 자의식과 사회적 위치를 그의 작품과 결부시켜 생각한다면, 발표에서 제시하신 작품들의 제작 동기와 제작 경위, 그리고 작품 자체에 대한 보다 폭넓은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식민주의라는 관점

‘인천 풍경’이라는 주제를 다룸에 있어, 이시이는 ‘무명의 풍경’을, 우노는 인천도호부관아 등과 같은 역사적 장소를 그리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끄니다. 두 화가의 그림을 식민주의의 관점에서 고찰하신 선생님의 분석은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다른 관점에서의 해석 가능성도 고려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이시이의 〈인천 풍경〉은 그 제작 동기에서 식민주의적 의도를 읽어낼 수 있으나, 평범한 일상적 풍경을 그린 점에는 그의 스승인 구로다 세이키부터 이어져 온

일본 근대 서양화의 풍경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노의 경우는 인천의 역사적 건축물을 ‘상상’하고 ‘각색’하여 복원도로 그린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시이의 ‘익명의 풍경’과 구별되는 ‘고적’이라는 소재의 선택과 ‘복원’이라는 표현 방식에 있어, 정치적인 의도 외에 조형적인 측면, 예컨대 일본화의 소재로서 명소나 역사적 장소가 갖는 의미, 우노의 스승이나 주변 화가들의 유사한 작례 등이 함께 고려된다면, 우노가 그린 인천 풍경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보다 풍성한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연구성과를 공유해 주신 윤현진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김주영, 2002 「在朝鮮 일본인 화가와 식민지 화단의 관계 고찰」 『미술사학연구(구. 고고미술)』 233·234, 한국미술사학회, pp.320-324.

3) 위의 논문, p.322.

‘신축개비’명 환도를
통해 본 조선후기
실전용 환도

박제광
(건국대박물관)

- I. 머릿말
- II. 조선의 환도
- III. 신축개비명(辛丑改備銘) 환도
- IV. 맺음말

I. 머리말

전통무기에 대한 이해는 곧 전쟁사를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전쟁 또는 전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접근하려고 해도 무기 활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전체적인 구도를 그려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군사사의 연구 현황을 살펴볼 때, 군제사라든가 병서·전쟁사 등에 관한 업적은 과거에 비해 매우 활발한 편이나 각 무기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나름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에는 다소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다.

특히, 조선 도검의 경우엔 연구 성과가 다소 부족하다. 실제 조선시대 도검의 현황 조차도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관심과 노력 또한 부족했던 듯하다.

금번에 인천시립박물관에 소장된 '辛丑改備銘 環刀'를 통해 조선 후기 실전용 환도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조선의 환도

환도는 조선시대의 도검을 대표하는 무기이다. 환도라는 명칭은 고려 충렬왕대에 처음으로 등장하고¹⁾ 그 후에도 원나라에 환도를 만들어 바친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칼자루가 짧은 외날의 칼은 대부분 環刀라고 불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환도 외에도 외날 도검의 이름으로 雲劍, 佩刀, 佩劍 등이 보인다. 하지만 운검은 국왕을 호위하는 신하가 패용하는 검이므로 칼의 장식이나 이름만을 달리 하였을 뿐이며 근본적으로 이는 환도의 일종이다. 佩刀는 청나라에서 환도와 유사한 외날 도검을 지칭하는데 쓰였던 이름인데 『조

1) 1277년(고려 충렬왕 3) 4월, 원나라 사신 劉弘·忽奴가 고려에 왔을 때 충렬왕이 李藏茂에게 함께 충주로 가서 환도 1천 자루를 만들게 했다는 『고려사』 기록이 있다.

선왕조실록』에서는 佩刀라는 이름이 자주 사용되었지만²⁾ 특정한 형태의 도검 양식을 지칭한다
기 보다는 “허리에 찬 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佩劍은 곧 환도의 다른 이름으로서 『조선
왕조실록』에 한두 번 언급되는데 그친다.³⁾ 또한 『무예도보통지』에는 銳刀, 雙手刀, 雙劍, 倭劍
등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이는 원래 검법의 이름일 뿐이며 실제 환도를 사용하여 수련하였다.
그 밖에도 실록을 보면 조선의 도검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바친 倭劍⁴⁾과 여진족의 도검,⁵⁾ 그리
고 심지어는 순조때 영국 이양선에서 발견된 도검까지도 모두 환도라고 기록하고 있는 점⁶⁾으
로 보아 환도라는 명칭은 조선시대에 외날을 가진 단병기를 총칭하는 이름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大環刀, 中環刀, 小環刀 등의 명칭도 나타나는데, 주
로 대환도⁷⁾와 소환도⁸⁾가 자주 등장하며 중환도는 두 번 정도 나타난다. 환도의 길이는 왜검에
비해 짧기 때문에 대환도, 중환도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며 따라서 환도 길이를 토대로
단순히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의 환도는 형식이 통일되지 않아 길이와 형태가 각각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문종은
함길도 도절제사인 이징옥의 요청에 따라 전투용 환도에 대한 규격화 작업을 시도했다.⁹⁾ 특히
실제 전투경험을 토대로 칼날이 곧고 짧은 ‘直短’의 형태가 중시되었다. 환도의 ‘직단’은 찌르
기에 편리한 단검과 같이 위급 상황에서 사용이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이에 긴
칼보다는 짧은 칼을 선호했던 것이다. 그러나 환도의 규격화 이후 편찬한 『국조오례의서례』 군

2) 『태종실록』권31, 16년 3월 갑진; 『세종실록』권11, 3년 1월 갑자; 권21, 5년 9월 임인; 『세조실록』권44, 13년 10월
병신; 『성종실록』권182, 16년 8월 갑진; 권255, 22년 7월 정해; 권285, 24년 12월 경진; 『연산군일기』권13, 2년 3
월 신사; 『중종실록』권3, 2년 8월 경인; 권57, 21년 7월 병신; 『인조실록』권15, 5년 3월 기사; 권46, 23년 6월 을
유; 『현종실록』권20, 12년 11월 무오; 『현종개수실록』권25, 12년 11월 무오.

3) 『세종실록』권133, 오례 / 군례 서례 / 병기.

4) 『태조실록』권10, 5년 12월 을사; 『태종실록』권13, 7년 1월 갑술; 『세종실록』권6, 1년 11월 을축; 권22, 5년 12월
갑술; 권27, 7년 3월 정축; 권30, 7년 12월 계사; 권32, 8년 5월 갑인; 권35, 9년 3월 을묘; 권36 9년 6월 병술;
권116, 29년 5월 을미; 권125, 31년 8월 병인; 『세조실록』권5, 2년 9월 병술; 『성종실록』권69, 7년 7월 정묘.

5) 『연산군일기』권13, 2년 3월 신사; 『인조실록』권46, 23년 6월 을유.

6) 『순조실록』권32, 32년 7월 을축.

7) 『중종실록』권102, 39년 4월 을유; 『선조실록』권41, 26년 8월 무자.

8) 『선조실록』권41, 26년 8월 무자.

9) 당시 보병용 환도는 길이 1척 7촌 3푼(54.04cm), 너비 7푼(2.19cm), 자루길이 2권(19.42cm), 기병용 환도는 길
이 1척 6촌(49.98cm), 너비 7푼(2.19cm), 자루길이 1권 3지(15.54cm)로 정했다.

례 『병기도설』에 환도의 규격에 대한 기록이 없기에 도검 제작에 지속적으로 적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더욱이 병사들의 체력의 강약이 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규격화
하여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도검의 활용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환도는 전투무기의 기능보다 개인의 호신용 기능이 더 강해지면서 후대의 간편성과 위
급시의 사용성이 중시되었기에 자연스럽게 길이가 짧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임진왜란 이전
조선 조정에서 환도의 길이가 너무 짧다는 논의도 있었고, 임진왜란 과정에서 일본도에 비해
조선 환도가 너무 짧다는 논의도 나타난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많은 의병장들은 노획한 일본
군의 무기를 재활용했다. 또 조선의 전통 도검에 일본도의 칼날 형태나 규격을 수용하여 만든
칼날을 장착해서 사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는 의병장 곽재우의 장도,¹⁰⁾ 권응수 장검,¹¹⁾ 정기
룡 장검,¹²⁾ 최진립 장검,¹³⁾ 최경희 장검,¹⁴⁾ 정문부 장도, 그리고 이광악의 보검,¹⁵⁾ 등에서 드러난
다. 이들 의병장들과 무관들이 일본도 또는 일본식 칼을 사용한 이유는 실전에서 왜군의 칼과
성능 격차를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일본군과 같은 성능과 사양을 가진 대등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10) 곽재우 장도(보물 671호)는 일본도의 와키자시 칼날과 외장을 거의 그대로 활용한 칼로, 칼자루와 머리장식만 조
선식으로 바꾸고, 칼집은 일본 칼집 특유의 코즈카꽃이가 있는 부분에 나무만 덧대어 막은 후 조선 패용장식과 칼
집끝 장식을 바꿔 달았다. 즉 칼날과 호인, 코등이, 절우, 칼집은 일본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사용 편의를 위해 칼
자루 재질, 규격, 장식, 그리고 칼집 패용장식, 끝장식을 교체했다.

11) 권응수 장검(보물 668호)은 노획한 일본도의 날과 호인을 그대로 사용하되, 칼자루와 칼집, 관련 부속은 조선 칼
의 형식으로 바꾸었다.

12) 정기룡 장검(시도유형문화재 286호)은 일본식의 칼날에 호인, 코등이를 그대로 사용하고, 칼집과 칼자루, 관련
부속은 조선 칼의 형식으로 바꾸었다.

13) 최진립 장검(시도유형문화재 280호)은 직도의 칼날에 일본식 호인이 남아있는 형태이다. 칼날 형태에 직도의 조
선 칼로 판단되기도 했으나 목정혈 위치와 스페 형태로 볼 때 일본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14) 최경희 장검(전남지방문화재)은 일본의 나가마키(長巻)의 칼날로 형태와 장식 등이 전형적인 나가마키의 양식에
속한다. 칼집과 자루는 없어졌고, 장식만 일부 남아 있다.

15) 이광악 보검은 전형적인 조선 도검의 형태이나 칼날과 호인과 코등이 등이 일본식이다. 일본도의 규격을 차용하
여 칼날과 외장을 조선에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1. 광재우 장도(충익사)



사진 2. 권응수 장검(국립진주박물관)



사진 3. 정기룡 장검(경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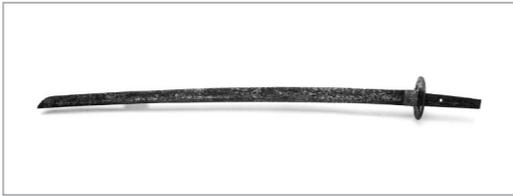


사진 4. 최진립 장검(최재량)



사진 5. 최경희 장검(의암사)



사진 6. 이광악 보검(독립기념관)

이후 조선은 전투 경험을 통해 일본도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환도의 길이나 형태가 점차 변화했다. 조선후기 화약병기의 발달과 화기의 전술적 활용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환도의 군사적 기능은 약화되었지만 근접전 단병전술이 부각되며 호신 무기로서 그 기능이 유지되어야 했기에 일본과 중국의 다양한 도검을 도입되어 활용되었다. 이런 연유로 조선후기의 환도 길이는 상대적으로 길어졌고, 형태적으로도 일본과 중국의 도검의 형태가 반영되어 제작되었다.

특히 조선의 환도는 시대가 흐르며 규격과 형태가 매우 다채롭게 변화했는데, 그 속에서도 전통 과학기술과 전통공예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독특한 형태를 보이게 된다. 조선 환도는 『세종실록』과 『국조오례의서례』, 『용원필비』 등에 그 모습이 드러나 있다. 조선 전기의 환도는 ‘칼날이 큰 폭으로 휘었고 길이는 상당히 짧은 편이었다.’

칼머리에는 豆錫 장식을 두르고, 칼자루엔 구멍을 뚫어 붉은 술인 紅條穗兒를 드리웠다. 칼집은 魚皮로 감싼 뒤 검은색이나 주홍색으로 칠하였다. 칼집에 달린 2개의 고리에는 끈을 꿰어 허리에 묶은 형태이다.¹⁶⁾ 반면 조선 후기의 환도는 칼날은 곡률이 직선에 가까우며 칼끝에서

16) 『세종실록』 오례, 군례 서례 병기

약간 휘임이 있다. 칼자루는 일본과 같이 가죽끈으로 묶되 간격을 넓게 하여 네 번 정도 감았다. 둥근 코등이의 한 쪽에는 구멍이 하나 뚫려있는데, 칼을 잠그는 비녀장이 끼워지는 구멍이다. 칼집에는 칼집 고리를 달기 위한 태가 두개가 달려 橫鐵로 연결된 형태이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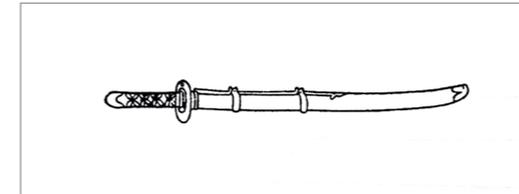


사진 7. 『용원필비』 환도



사진 8. 『용원필비』형 환도

위의 『용원필비』의 환도 도해와 유물을 보면 당시 조선군이 사용하던 환도의 칼자루에 X자 교차매기로 끈을 감는 방식이 정착됐음을 보여준다. 다만 칼자루의 머리장식인 카시라(頭-かしら)에 나있는 구멍을 통해 장식을 함께 묶어 결합하여 끈매기를 마감하는 일본식과는 달리, 조선 환도의 끈매기는 칼자루 머리장식과 연결 없이 자루끝장식 직전에서 매듭 지어 마감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조선의 환도는 다양한 물체에 대한 우수한 절삭력을 지닌 독특한 형태의 刀身에서부터 실용과 장식의 조화를 엿볼 수 있는 스페와 자루의 고정방식, 도신 제작기술에 담겨진 열처리 과학, 근현대 군도보다 더욱 앞서고 견고했던 잠금장치, 중국·일본 도검과는 다른 독창적인 패용장식 등의 특성을 지닌다. 특히 칼집은 외형적으로 볼 때 어피로 감싸 마감하거나 주철·흑철로 마감한 정도로 보이지만 실제 여러 재료를 혼합하여 칼집 구조의 견고함을 도모해 내구성에서 있어서 중국, 일본의 칼집이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7) 『용원필비』 환도

Ⅲ. 신축개비명(辛丑改備銘) 환도

인천시립박물관에는 고위장령환도와 하위장령환도 2점이 소장되어 있다.¹⁸⁾ 그 중 한 점, 하위장령환도에는 “辛丑改備 江華庫藏”이란 명문이 쓰여져 있다. 최근 이와 유사한 형태의 환도가[사진9~14]와 같이 여러 점이 나타나고 있다. 조선의 환도 대부분이 외형으로 부터 길이, 날 폭, 소리(도신의 휨), 외장, 패용장식, 마무리 장식 등에서 매우 다양한 양태를 보인다. 반면 신축개비명 환도는 현재까지 수 점의 환도와 동일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중기 이후 환도가 『용원필비』의 환도로 변해가는 가는 과정에서 환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제작 패턴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진 9.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환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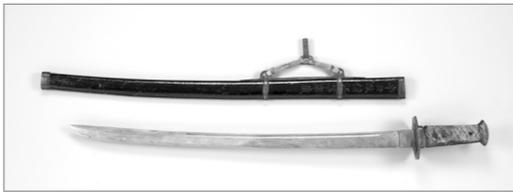


사진 10.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환도(2)



사진 11. 강화역사박물관 소장 환도¹⁹⁾



사진 12.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환도(1)²⁰⁾



사진 13.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환도(2)²¹⁾



사진 14.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환도(3)²²⁾

18) 고위 장령 환도 89cm, 하위 장령 환도 87cm. 명칭은 매도자가 환도의 장식 및 마감상태를 토대로 붙인 명칭으로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편의상 구분하여 사용토록 하겠음.

19) 강화역사박물관, 전체 길이 87.5cm, 칼날 길이 66.6cm, 명문 “辛丑改備 江華庫藏”.

20) 국립고궁박물관, 고궁3736 환도, 명문 “辛丑改備 江華庫藏”.

21) 국립고궁박물관, 고궁3737 환도.

22) 국립고궁박물관, 고궁3839 환도, 명문 “辛丑改備 江華庫藏”.

박물관 소장의 환도의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위장령환도는 질 좋은 어피로 칼집을 싸고 옷칠을 올려 마감했고, 모든 장식에 은입사된 철제 장식을 사용했으며, 당초문의 포목 상감된 팔각형의 칼막이를 사용했다. 아울러 칼자루는 흑칠을 올린 어피 위에 갈색 면끈을 이용하여 X자 방식(일본도 끈 감기 방식)으로 감았고, 칼자루 머리 장식은 중국식으로 마감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위 장령 환도 역시 어피로 칼집을 싸서 두텁게 옷칠을 올렸고 모든 장식에 은입사된 철제 장식을 사용했으며, 당초문 포목상감된 팔각형의 칼막이, 칼자루는 주칠을 올린 어피 위에 갈색 면끈으로 X방식으로 감았고, 칼자루 머리 장식 역시 중국식으로 마감되었다. 또한 칼집 위에 “辛丑改備 江華庫藏” 명문이 주칠로 쓰여져 있고, 혈흔으로 보이는 흔적이 면끈에 남아 있고, 도신에는 격검흔도 남아 있다.

이들 환도의 외형적 특성은 환도가 조선 중기 이후 일본 및 중국 도검의 형태를 도입하여 적용된 모습을 잘 보여준다. 임진왜란 이후 환도는 실전용 도검으로서 활용성을 강조하게 된다. 당시 일본도는 조선이 사용하고 있던 칼에 비해 우수했고 조선군은 즉시 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칼이 필요했다. 그 결과로 일본도의 형식과 규격을 신속하게 차용하여 칼날을 만들고 조선식 칼자루와 칼집 그리고 조선 특유의 패용장식 등의 부속으로 새롭게 칼을 변화시켜 전투에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칼날과 칼집, 칼자루의 형태에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환도의 형태를 좀 더 자세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칼날은 외래 요소가 수용되었으나 조선 후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보여준다.
- ② 칼집의 어피는 주칠어피를 다룬 형태 및 마감방식과 그 위에 칠한 진한 주합칠의 방식까지 전형적인 조선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 ③ 띠돈고리와 각종 장식의 형태나 장식에 활용된 은입사 방식은 기존의 이순신 장검을 비롯하여 실전용 도검에서 나타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며, 특히 철제 장식에 시문된 은입사의 기법과 문양은 조선의 전형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 ④ 당초문의 포목 상감된 팔각형의 칼막이도 조선의 다양한 실전용 도검에서 나타나는 형식과 동일하다.
- ⑤ 칼자루는 어피로 마감한 후에 면끈 교차매기를 했다. 교차매기는 본래 외래적 수용 요소이지만 마감 처리 방식은 조선식으로 변화했고, 조선의 군용 환도에 도입되어 조선시대 후기까지 사용된다. 도검에 이렇게 면사나 가죽으로 감는 것은 땀으로 인해 손에서 벗어남을 방지하

기 위해서이며, 동시에 알맞은 글립감을 얻기 위한 것으로 조선 중기 이후 실전용 도검으로서 기능을 살리기 위해 나타났다. 다만 끈의 소재는 가죽을 사용했으나 면끈으로 마감한 점이 다르다. 칼자루 윗 장식은 아래가 좁고 윗부분의 폭이 넓어지는 타원형 깔대기형 장식으로 중국 도검의 요소가 적용된 것이나 일찍이 조선에 수용되어 조선시대에도 유사한 형태가 사용되기도 했다.

한편 이들 환도의 제작 시기는 1점의 환도에 쓰여진 “辛丑改備 江華庫藏”의 명문으로 추정 가능하다. 김신에 검명이나 상징적인 문구가 새겨진 경우는 있으나 “신축개비 강화고장”처럼 도검의 외장에 쓰여진 예는 드물다. 화기의 경우에도 제작연도 등이 명문으로 나타나지만 냉병기의 경우에는 수시로 보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극히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점이 아니고 3점에서 동일한 형태의 명문이 쓰여져 있다면 적어도 나름 이유가 분명하게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을 고려해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관찬사서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1781년 12월 19일, 정조는 군기를 강화부의 별고에 저장하고 유수에게 다음과 같은 유서를 내린다.

“內庫에 저장했던 軍物과 器用을 특별히 本府에 비치하게 한 것은 이를 設施토록 한 法意를 우리러 알 수 있다. 예전부터 列朝에서 이미 행하여 왔으므로 하나의 통상적인 일이 되어 왔는데, 간간이 京用이 浩大하여지고 또 各庫가 火災를 겪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숫자가 천백 분의 일 정도뿐만이 아니다. 따라서 내가 매양 舊例를 우리러 繼述하려는 뜻이 있어 제반 용도를 힘써 줄이는 쪽을 따랐는데, 이는 용도를 절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先朝의 뜻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었다. 등극한 이후 經紀한 物種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또 작년 여름 時敏堂의 화재가 있을 때 모두 불타버리고 말았다. 그 이후 다시 저축에 유의하여 왔는데, 근래에 이르러 비로소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내고에 있던 흑각 장궁(黑角長弓) 4백50장(張), 흑각 후궁(黑角候弓) 50장, 흑각 상방궁(黑角尙方弓) 3백50장, 특별히 제조한 흑각궁(黑角弓) 5백 장, 방물 각궁(方物角弓) 1백 장, 죽궁(竹弓) 50장, 회목궁(檜木弓) 50장, 교자궁(交子弓) 4백50장, 육량 강궁(六兩強弓) 1장,

합하여 궁자(弓子) 2천1장, 적마전(狄磨箭) 1백 부(部), 별괄 장전(別箬長箭) 1천7백 부, 자괄 장전(自箬長箭) 1천5백 부, 자괄 편전(自箬片箭) 2천 부, 합하여 전(箭) 5천3백 부, 통아(筒兒) 2천 개(箇), 방물 통개(方物筒箇) 5백60부, 흑서피(黑黍皮)에 은입사(銀入絲)한 통개40부, 합하여 통개(筒箇) 6백 부, 고장환도(故裝環刀, 胡製環刀의 오기로 보임) 1백 병(柄), 청제환도(淸製環刀) 1백 병, 장검(長劍) 15병, 단검(短劍) 10병, 합하여 도검(刀劍) 2백25병, 조총(鳥銃) 3백 병, 당파창(鎗鈹槍) 10병, 편곤(鞭棍) 20병, (중략) 등을 신축년 別置條로 이름하여 특별히 差定한 別軍職 申應周가 표신을 받들고 겸하여 물건을 영수해 내려가니, 경은 숫자를 대조하여 영수하고, 별군직과 입회하여 별고에 저장한 다음 그 形止를 狀聞하라.” 하였다.²³⁾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사시에 활용을 위해 도성(大內)에 있던 군기와 군물 등을 강화도에 별도로 보관하는 예가 있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실행하지 못하다가 1781년에 시행하게 되었고, 이 업무를 별군직 신용주에게 맡겼으니 강화유사가 강화도의 별고에 저장한 뒤에 그 상황을 보고하라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승정원일기』²⁴⁾에도 드러난다. 이후 『비변사등록』에는 江華府에 소재한 軍物을 反庫하기 위해 別軍職의 申應周가 표신과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니 잘 받아서 별군직과 함께 入庫하고 거행한 내용을 보고토록 하라는 備忘記가 기록되어 있다.²⁵⁾ 『일성록』정조 5년 신축(1781) 12월 19일(정해)에도 같은 내용의 기록이 있다.²⁶⁾ 이후 1796년 화성 축조 이후 군기 확보를 위해 “沈都내 武庫에 별도로 둔 軍物이 있는데 병신년 이후에도 별도로 만들어 수송해 둔 것이 많으니, 그걸 가져다 써도 불가할 것이 없다. 갑주 1백 부, 조총 3백 부, 환도 2백 자루, 각종 활 1천 장, 장전죽 6백 부, 통개 2백 부를 화성으로 수송”하라는 내용²⁷⁾이 『비변사등록』에 나온다.

23) 『정조실록』 12권, 정조 5년 12월 19일

24) 『승정원일기』 1500책, 정조 5년 12월 19일 정해

25) 『비변사등록』 163책, 정조 5년 12월 16일, 강화부에 소재한 軍物을 反庫하기 위해 별군직의 신용주가 내려가니 잘 받아서 당일로 入庫하고 狀聞하라는 비망기.

26) 『일성록』 정조 5년 신축 12월 19일, 대내에 비축해 둔 軍物과 器用 중에서 신축년 條를 別庫에 저장한 뒤에 장문 하라고 명하였다.

27) 『비변사등록』 183책 정조 20년 3월 28일조

아울러 환도 외에도 “辛丑改備 江華庫藏”의 명문이 쓰여진 유물이 있는데, 강화역사박물관에 소장된 조총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辛丑改備 江華庫藏’의 의미는 위의 1781년 강화도의 별고에 보관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긴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건데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환도는 조선 중기 이후 실전용 도검의 중요성으로 인해 일본·중국식의 형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적용된 환도라 할 수 있으며, 이후 『용원필비』에 드러난 환도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환도로 보인다.

IV. 맺음말

조선의 환도는 임진왜란기 이순신을 비롯한 장수와 의병장들이 사용했던 유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선 후기의 유물이다. 임진왜란기 유물들의 경우에는 의병장 곽재우 장도, 권응수 장검, 정기룡 장검, 최진립 장검, 최경회 장검, 그리고 이광악의 보검 등이 있다. 이들 모두 실전에서 효용성을 고려하여 칼날, 호인, 코등이, 칼자루 등에서 일본·중국의 형태가 변형되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전에서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①노획한 일본도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②일본도의 칼날만 빼내어 사용하기 편하도록 조선 도검의 외장과 결합하여 토착화시키거나, ③일본도 칼날의 규격을 차용하여 조선 칼을 제작하는 등으로 다양하게 변형시켰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자루와 칼집, 패용장식 등은 조선 특유의 형태를 고수하기도 했다. 조선 후기의 도검과 관련하여 삼국간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삼국간의 도검의 여러 부분이 차용되어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환도는 『용원필비』의 환도 이전의 과도기적인 모습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단순 장식성 환도에 비해 견고하고 날카로운 칼날, 어피와 은입사 장식을 통해 갖춘 높은 예술성을 갖추었으나 실전용을 고려하여 튼튼하게 제작된 띠돈고리와 칼막이, 마무리 장식 등, 전투에서의 글립감을 고려한 면피 X자 매기, 두툼하고 뭉툭하게 제작하여 공격성을 강화한 칼자루 머리장식 등은 다분히 실전을 고려하여 변화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후 환도는 『용원필비』에 제시된 균용 환도로 변화 발전하게 된다.

또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환도는 명문으로 인해 제작 시기가 특정될 수 있는 유물이기에 향후 조선 후기 도검 발달사 연구에 있어서도 가치가 높은 유물이라 할 수 있다. 『용원필비』에 제시된 환도나 서구에도 도입되는 사브르 형태의 환도²⁸⁾들과 비교하여 도검의 발달 흐름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환도의 손잡이 면피에서의 혈흔 추정 얼룩이나 도신에 나타난 격검 흔적 등은 강화도에서 벌어진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때 사용했을 가능성도 높기에 귀중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28) 이들 사브르 형태의 곡병 환도는 경상대박물관을 비롯하여 경인미술관, 건국대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고, 철종 어진에 그려진 어도의 형태에서도 확인된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국조오례의서례』, 『응원필비』, 『훈국신조군기도설』 등
 강성문, 「조선시대 환도의 기능과 제조에 관한 연구」 『학예지』 3, 육군박물관, 1993.
 강성문·김기웅 외, 『한국무기발달사』, 국방군사연구소, 1995.
 김성혜·박선식, 「조선시대 도검의 실측과 분석」 『학예지』 5, 육군박물관, 1997.
 김성혜·김영섭, 「도검의 기능성 연구」 『학예지』 6, 육군박물관, 1999.
 곽성훈, 「왜란기 이후 한국 도검의 발달사 중 도검 형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 용인대 석사논문, 2002.
 강신엽, 『조선의 무기 I·II』, 봉명, 2004.
 박제광, 「조선시대 도검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학예지』 11, 육군박물관, 2004.
 이석재, 「조선시대 도검의 유형분석」 『학예지』 11, 육군박물관, 2004.
 이석재, 「애자문 연구」 『학예지』 11, 육군박물관, 2004.
 김미경, 「칠성검 연구」 『학예지』 11, 육군박물관, 2004.
 이승해, 「조선시대 도검에 나타난 문양과 매듭장식에 관한 연구」 『학예지』 11, 육군박물관, 2004.
 조혁상, 「조선조 검무시에 나타난 검의 이미지」 『학예지』 11, 육군박물관, 2004.
 강신엽, 「조선시대 윤검·별운검·보검 연구」 『학예지』 11, 육군박물관, 2004.
 강순애,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본 환도의 의미와 기능」 『학예지』 11, 육군박물관, 2004.
 안재한, 「조선시대 회화에 나타난 도검의 모습」 『학예지』 11, 육군박물관, 2004.
 박제광 외, 『나라를 지켜낸 우리 무기와 무예』, 두산동아, 2007.
 윤덕재, 「조선시대 도검의 신분계층별 비교 고찰」, 수원대 석사논문, 2009.
 박제광 외, 『한국군사사 제13권—군사통신·무기』, 한국미래문제연구원, 2011.
 조혁상, 「조선후기의 도검 증여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연구』 27,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4.
 이석재, 「형태와 용도로 본 이충무공 장검의 정체성 고찰」, 고려대 석사논문, 2015.
 조혁상, 『조선후기 도검문학 연구』, 학자원, 2021.

우선 이번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소장 자료로 읽는 인천’ 관련하여 발표자 여러분을 포함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토론을 담당한 부분은 건국대 박물관의 박제광 학예실장의 ‘신축개비명 환도를 통해 본 조선후기 실전용 환도’에 대한 논평입니다. 발표자는 전쟁사 연구 뿐만 아니라 무구류 연구와 감정 부문에서도 탁월한 실적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논문을 통해서 ‘신축개비명 환도’와 관련한 여러 상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발표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발표자에게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은 독자의 입장에 있는 토론자의 오해인 부분도 다소 있을 것입니다. 부담없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1. 도검 관련한 연구사 정리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아마도 본 논문에서는 제출 원고 매수 제한으로 인하여 이것이 생략된 듯합니다. 독자들은 연구사를 통해서 해당 분야의 범위와 심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검 관련해서 기존 연구사 현황과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환도는 패검(佩劍, 『세종실록』 「군례서례」), 요도(腰刀, 무예도보통지)라고도 합니다. 예도(銳刀), 제독검(提督劍), 본국검(本國劍), 신검(新劍) 등 명칭은 다르지만 모두 환도와 궤를 같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선 전기 환도의 특징이 ‘직단(直短)’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세종실록』 「군례서례」 · 『국조오례서례』 「군례」에 나타나는 환도의 휘어진 모습과 다릅니다. 양자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환도에 대한 규격화 작업은 문종 이후의 문헌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논의는 크게 의미가 없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유사시 타 무기에 비해 도검의 중요성이 부각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도 규격화 작업의 논의가 중단된 것은 발표자께서 주장하신 것처럼 ‘명사들의 체력 강약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군사 제도 운영 상의 문제와 중복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4. 화기의 경우, 『용원필비』(순조 12, 1812)에 주척(周尺)에 의거해서 측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식으로 환산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고대의 도량형은 현대의 그것처럼 완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하게 계산하기 어렵지만, 그 유사치는 측정할 수 있습니다. 주 9)에서 “보병용 환도는 길이 1척 7촌 3푼(54.04cm), 너비 7푼(2.19cm), 자루길이 2권(19.42cm), 기병용 환도는 길이 1척 6촌(49.98cm), 너비 7푼(2.19cm), 자루길이 1권 3지(15.54cm)”로 설명하였습니다. 당시의 환도에 적용된 도량형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한 직간접적 설명 부탁드립니다.

5. 발표자는 의병장들이 일본도의 칼날 형태나 규격을 수용하였음을 설명하면서 “조선후기 화약병기의 발달과 화기의 전술적 활용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환도의 군사적 기능은 약화되었지만 근접전 단병전술이 부각되며 호신 무기로서 그 기능이 유지되어야 했기에 일본과 중국의 다양한 도검을 도입되어 활용되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고에서 광재우 장도·권응수 장검 등 여러 의병장이 사용한 도검과 일본도와의 관계는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소장 도검과 중국 도검의 특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든 설명이 부족한 듯합니다. 조선후기에 수용된 중국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특히 개인 소장의 사례와 현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6. “辛丑改備 江華庫藏”에서 ‘신축년’은 추정해 볼 수 있는 연대가 대체로 대한제국 광무 5년(1901), 현종 7년(1841), 정조 5년(1781) 등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대한제국 광무 5년(1901)’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이 주장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발표자께서 ‘정조 5년(1781)’으로 특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논문에서 서술하신 내용을 더욱 뒷받침 해줄 추가 사료 또는 추가 유물이 더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환도는 ‘辛丑改備 江華庫藏’명문으로 인해 제작 시기가 특정될 수 있는 유물이기에 향후 조선 후기 도검 발달사 연구에 있어서도 가치가 높은 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는 이 유물과 관련해서 사료를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심도있게 분석하고, 타 유물과도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도검, 더 나아가 전쟁사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에도 그 의의가 클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邵城陣中日誌』의 사료적 가치 고찰

노영구
(국방대학교)

『소성진중일지』 개관

- I. '일지'에 보이는 고종 초기
지방군 강화의 일례
- II. 『소성진중일지』의 兵學 관련 내용
- III. 19세기 중반 조선의 무기체계와 火攻방략
- IV. 나머지말

『소성진중일지』 개관

본 발표의 검토 대상 자료인 『邵城陣中日誌』(이하 ‘일지’로 약함)¹⁾는 한국의 저명한 국제정치 학자인 이용희 선생이 소장하였던 19세기 중반인 신미양요(1871) 당시 인천도호부의 전쟁 대응 양상을 보여주는 매우 흥미로운 자료이다. ‘일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앞부분은 1871년 4월 6일부터 5월 23일까지 48일간 인천의 진중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일기이고, 뒷부분은 「仁川別武廳柱聯」, 「邵城府砲檄序」 등 신미양요 당시 인천의 군사 및 지역 상황을 알수 있는 절목 등의 자료 10종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일지’는 신미양요 시기 인천의 상황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어 매우 흥미로운 자료이다.

‘일지’의 앞 부분은 신미양요 당시 미 함대의 동향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인천 일대의 대응 양상이 잘 드러나 있다. 특히 많은 부분이 작성자인 구연상과 인천도호부사 구완식, 또는 구완식과 손님 사이에 군사 및 병법과 관련된 질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은 특이하다. 이를 통해 당시 조선 고위 무관의 병학 수준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일지’에 수록된 미 함대의 종적과 인천의 軍器와 군수, 날씨 정보 등에 대해서는 이 자료의 번역서 앞에 임학성의 간략한 해제가 있어 참고가 된다.

‘일지’의 작성자인 구연상(具然相, 1832년~?)은 본관은 능성(稜城)으로 시조는 고려 때 벽상 삼한삼중대광 겸교 상장군(壁上三韓三重大匡 檢校上將軍)을 지낸 구존유(具存裕)로 구연상은 그의 23세손이다. 능성구씨는 도원수 성로(成老) 대인 조선 건국초기에 이르러 12개 분파가 생겼는데 도원수공파가 주로 무반가계를 이루었다. 구성로의 손자 중 무과 출신인 具致洪의 후손들이 조선후기 무반별열 가문을 이루었는데 구연상이 치홍계의 후손이다.²⁾ 구연상은 1855년

1) 이용희 선생이 소장한 이 책의 원 자료는 『邵城軍中日記』로 되어 있으나 1963년 원본을 인천시립박물관에서 대어 하여 펜으로 초출한 필경본의 표제는 ‘邵城陣中日誌’로 되어 있다. 이 자료의 앞 부분은 일기이고 뒷부분은 당시 인천 관련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 체제로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에서 간행한 번역본도 『역주 소성진중일지』(2008)로 되어 있으므로 본 발표에서는 널리 알려진 표제인 ‘소성진중일지’라는 명칭을 사용하겠다.

2) 장필기, 2004 『조선후기 무반별열가문 연구』, 집문당, 230~234쪽

무과에 급제하여 부장(部將)[1869]을 거쳐 1870년에는 무검 선전관에 임명되었다. 아버지는 구정식(具廷植), 조부는 구병희(具秉禧), 증조부는 구관석(具觀錫)으로, 그 선대로 올라가면 무과 급제자를 다수 배출하였다. 구연상의 숙부인 具完植은 1870년 윤10월 인천도호부사에 임명되어 1874년 정월까지 역임한 이후 금위대장 등을 역임한 유력한 무장이었다. 특히 구완식은 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과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 문하에서 성리학을 배워 학식도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다. ‘일지’에서 구연상과 손님의 병학 관련 질문에 대해 매우 심도깊은 답변이 가능하였던 것도 평소 그의 군사적, 학문적 지식이 매우 높았음을 잘 보여준다.

본 발표에서는 기존의 해제에서 밝혔던 신미양요의 대응 관련 내용 등에서 나아가 ‘일지’가 가지는 사료적 가치를 드러내고 향후 연구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19세기 중반 고종대 초기 조선의 무기, 병학, 지방군 정비 등 몇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자료가 기존의 관련 연구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신미양요 전후 인천도호부의 대응과 군제 개편, 조선 병학의 수준 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할 자료로서 적극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발표에서는 기존의 해제에서 밝혔던 신미양요의 대응 관련 내용 등에서 나아가 ‘일지’가 가지는 사료적 가치를 드러내고 향후 연구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19세기 중반 고종대 초기 조선의 무기, 병학, 지방군 정비 등 몇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자료가 기존의 관련 연구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신미양요 전후 인천도호부의 대응과 군제 개편, 조선 병학의 수준 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할 자료로서 적극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 ‘일지’에 보이는 고종 초기 지방군 강화의 일례

병인양요의 여러 전투를 통해 조총을 다루는 포군(砲軍)의 유용성이 확인되면서 조선의 포군은 급격히 증가되었다. 병인양요 직후 3,600여명의 포군이 전국 각 군현에 증원되었고 이러한 양상은 1871년 신미양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³⁾ 각 군현의 포군 규모에 대해서는 연대기 자료의 관련 내용을 정리한 연갑수와 배항섭 등의 상세한 연구가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⁴⁾ 다만 각

3) 연갑수, 1997 「대원군 집권기 국방정책」, 『한국문화』 20, 271쪽

4) 배항섭, 2002 「19세기 조선의 군사제도 연구」, 국학자료원

군현 포군의 구체적인 증원 방식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는 못하였다.

‘일지’의 대상 지역인 인천도호부는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함대가 대부도와 영흥도 사이 항로를 통해 강화도와 한강 하류로 이동하였으므로 인천부 일대 경기만 방비가 매우 중요해졌다. 이후 인천 지역의 군사력 확충은 시급해졌는데, ‘일지’의 부록에는 「소성부포계절목」, 「인천부사포계절목」 등의 절목을 통해 砲稷, 혹은 射砲稷 등의 형태로 다수의 포군 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성부포계절목」에 의하면 신미양요 직전인 경오년(1870, 필사본에는 갑오년으로 표기됨)에 조정의 특별한 명령으로 인천부의 結稅 중 1,600섬과 돈을 나누어 내려주고 둔전에서 120여섬을 나누어 지급하여 아전과 백성 중에서 용감한 자 300명을 골라 별무사라 칭하고 군사력으로 확보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포구와 일곱 마을(村)에서 장정 700명으로 砲稷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구연상은 ‘일지’의 서문에는 별무사에 대해 정예 장정 300명을 뽑아 전, 중, 후 3개 초로 나누어 무예를 가르치고 총쏘는 법을 익히도록 하였고 아홉 면의 주민으로 각각 100명씩 稷, 즉 砲稷을 만들어 조총을 다루는 기술을 익히도록 하고, 또 100명씩 射稷을 다시 조직하여 포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몇 달 지나지 않아 인천도호부는 정예병 1,000여명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확보된 인천도호부 군사들은 4월 초6일 미국의 전함인 수원 경내의 楓島로부터 인천 바다로 들어오며 신미양요가 발발하자 인천 일대 방어에 곧바로 동원되었다. 그날의 ‘일지’ 기사에 의하면 전초병은 官門에 결진하고 중초병은 문학사 서현 및 제월봉에, 후초군은 도찬현을 지키도록 하였다. 연해의 각 포구인 제물포, 십정포, 화춘포, 한진, 도장포, 남춘전포, 고잔포, 신현포 등지 방수장이 해당 浦軍을 동원하여 지키도록 하였다.

3초군은 별무사이며 浦軍은 포계와 사계의 군사로 보인다. 즉 병인양요 이후 별무사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지방 砲軍과 이들을 뒷받침하는 포계와 사계의 군사 등 증강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⁵⁾ 아울러 인천 부내의 군사를 배치 이후 수어영의 별파진, 전국 각지의 포수, 훈국[훈련도감] 군사의 증원을 받아 인천 일대 요충지에 군사를 매복하거나 배치하였다(4월 20일, 5월 초5일 등). 이를 통해 군영의 군병과 지방의 군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통합 운용되었는지에 대한 단초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 연갑수, 1997 「병인양요 이후 수도권 방비의 강화」, 『서울학연구』 8, 77~78쪽

II. 『소성진중일지』의 兵學 관련 내용

‘일지’의 많은 부분은 필자인 구연상과 손님이 인천도호부사 구완식에게 병학 관련 질문을 하면 이에 답한 내용이 차지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三才의 이치, 삼재 變應의 이치, 삼재의 隨用(4월 22일), 『萬機論』의 장수의 구별(4월 25일), 用兵之道(5월 15일), 先勝後求戰, 勝敗(5월 17일), 任勢, 用間(5월 19일), 五機(5월 21일) 등에 대한 것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구완식이 답변한 내용의 대부분은 1867년경 편찬된 것으로 중국과 우리의 여러 병서 가운데 긴요한 내용을 간추려 놓은 책인 『戎書撮要』의 해당 부분과 중복된다. 「만기론」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용서찰요』 권1의 해당 항목의 내용과 상당 부분이 중복되고 있다. 『용서찰요』의 권1은 택장(擇將)·임장(任將)·장직(將職)·용인(用人)·삼재수용(三才隨用)·삼재응변(三才應變)·선모(先謀)·선승(先勝)·승패(勝敗)·임세(任勢) 등 34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일지’의 언급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이것은 구완식이 『용서찰요』의 저술 과정 등에 깊숙이 관여하였거나 아니면 이 책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책의 저술 경과를 서술한 서문을 보면 몇가지 주목되는 바가 있다.

마침 나(葛峰老樵)의 동생이 군영에서 중임을 맡고 있을 때에 군비가 무너지고 해이해진 것을 마음 속으로 개탄스럽게 여겼다. 그 후 나의 동생이 일찍이 훈련대장으로 있는 신관호(申憲)에게 심오한 대책을 논의했는데 그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대장께서 소장하고 있던 책을 보여주면서 정신을 집중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여 (중략) 장수의 도리, 영진법, 기병, 정병의 운용술, 무기 관련 내용 가운데 긴요한 말을 대략 간추리고 요즘 시대에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 하나로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장절 사이에 약간의 설명을 붙이고 서문을 썼다.

이 서문을 보면 저자인 갈봉노초의 동생이 군영의 주요 직위자로 훈련대장 신헌과 관계가 깊은 무인이었으며 병인양요 이후 군사력 증강과 병학 연구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구완식이 『용서찰요』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언급하고 있으며 고위 무관임을 고려한다면

갈봉노초의 동생이 구완식이거나 그와 관련된 인물임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울러 5월 23일 진영에 온 손님이 병학의 이론 및 신미양요 당시 방어문제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하였을 때 구완식은 다양한 병서와 고전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때 인용되거나 검토되는 고전과 인물로는 『회남자』, 『장자』, 태공망, 『손자』, 『이위공문대』, 『장자』, 『예기』, 『주역』 등이 있다. 이외에 『서애집』에 보이는 율곡의 10만양병론과 송상현 관련 일화 등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병학 이해는 구완식이 벌열무반 가문의 일족으로 홍직필(洪直彌)과 이항로(李恒老) 문하에서 성리학을 배워 학식이 매우 높았던 점과 관련이 있다. 특히 17세기 중반 이후 조선 무인들의 문학적, 학문적 소양이 높아진 것과도 관련이 있다. 17세기 이후 조선의 무인들은 스스로 문인, 學士와 같은 품모를 가지려 노력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⁶⁾ 아울러 병학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을 모아 하나의 체재로 정리하거나 기존의 중국 고전 병서를 조선의 방식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노력(예를 들어 『孫子髓』 편찬)이 18세기 후반 이후 나타났다.⁷⁾

‘일지’의 병학 관련 내용은 19세기 중반 조선 무인의 병학 이해의 수준을 보여주는 자료임과 동시에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용서찰요』, 『손자수』 등 19세기 중반 조선 병서에 대한 검토 필요성 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자료적 의미가 크다.

III. 19세기 중반 조선의 무기체계와 火攻방략

1866년(고종 3) 7월 하순 제너럴 셔먼호 대동강 침투 사건과 8월 중순 프랑스 군함의 한강 침투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조선은 서양의 輪船이 강을 거슬러 도성 등 조선의 주요 도시를 직접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江을 연한 방어 체계, 이른바 강방(江防)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江防의 필요성을 최초로 제기한 것은 잘 알려져 있듯이 1840년대 청나라의 위원(魏源)에 의해서였다. 위원은 1840년대 초 중영전쟁을 직접 체험하고 나서 서양 세력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한 여러 방략을 『海國圖志』에 정리하였는데 이는 중국뿐만 아

6) 『갈암집』 속집 권3, 『嘉善大夫行平安道兵馬節度使兼安州牧使五衛都總府副總管許公神道碑銘』

7) 노영구, 2017 『조선시대 『武經七書』의 간행과 활용의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80

나라 조선과 일본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주었다.

『해국도지』에서 위원은 서양 세력을 막는 대책을 크게 議守, 議攻, 議款의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을 수비를 우선하는 의수(議守)라고 하였다.⁸⁾ 이러한 議守에는 3가지 방법, 즉 守外洋, 守海口, 守內河가 있는데 이중 가장 좋은 방법은 守內河라고 魏源은 주장하였다. 이 방략은 적의 배를 최대한 내하(內河)로 유인하여 적함이 잘 운신하기 어려울 때 뗏목 등으로 그 진로를 막고 일시에 대포를 쏘면서 급습하고 한편으로 조류를 이용하여 잠수꾼인 수용(水勇)으로 하여금 불붙인 작은 배인 화주(火舟)를 밀어 일거에 공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수내하는 큰 적선이 운신하기 어려운 내륙 수운으로 적선을 끌어들여 공격한다는 강방과 동일한 개념이었다.

조선에서도 병인양요 직전부터 강방 개념에 따른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군사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연안 주요 지역에 방어시설을 갖추고 화포를 배치하도록 하였다.⁹⁾ ‘일지’에서도 이러한 방어전략에 따른 공격 전술인 이른바 ‘화공방략(火攻方略)’이 제시되어 있다. 4월 13일 기사에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저들의 배가 정박하고 있는 곳은 조수가 물러나면 너비가 5리에 불과하므로 천자총통에 將軍箭을 버리고 大丸을 채워 몇 척의 배에 적절히 배치한 뒤에 해무가 낀 어두운 밤에 潛水軍으로 하여금 몰래 배를 끌게 하여 저들의 배 30~40보 근처까지 이르게 한 후 동시에 포를 쏘아대면 저들의 배가 비록 견고하다 해도 어찌 부서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위의 기사에 따르면 아울러 내해 등 폭이 좁아 기동력이 저하된 적선을 잠수군이 천자총통을 실은 작은 배를 이용하여 몰래 접근하여 공격한다는 전술이 잘 드러나 있다. 아울러 부평의 울도와 호도, 영종의 무치도와 월미도, 인천의 고잔과 제물 등 인천 주변 경기만 일대의 여러 지역에 화기를 많이 배치하여 좌우에서 공격하도록 하였다. 이는 內海인 인천 일대 해안의 특성을 이용하여 적선을 좌우에서 공격하도록 한 것으로 『해국도지』의 수내하 전술과 거의 유사하

8) 『海國圖志』籌海篇「議守」上, 이하 『해국도지』의 江防論에 대해서는 원재연, 2001 『『해국도지』수용 전후의 어양론과 서양인식 - 이규경(1788 ~ 1856)과 윤종의(1805~1886)를 중심으로 -』 『한국사상사학』 17 참조.

9) 김명호, 2005 『초기 한미관계의 재조명』 역사비평사, 82~83쪽 ; 노영구, 2009 『신현의 國防論과 해안 砲臺 건설』 『문헌과 해석』 48; 최진욱, 2011 『병인양요 전후 신현의 대내인식과 개혁론』 『한국사학보』 42 등

다. 병인양요 이후 조선의 한강, 대동강 등 주요 강 하구와 내해 일대에 다양한 방어시설이 갖추어지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방어전략의 일환이었다.

당시 조선이 준비하던 화기로는 神器火箭, 九牛瓮砲, 火龍出水砲, 불랑기, 竹將軍 등이 있었다.(4월 13일) 이외에도 龍王砲, 銅發槓火箭, 천지 화포 등의 화포 이외에 목인활마포, 神火, 飛鵝砲, 우레포, 화룡권지차, 지뢰포 등의 각종 화기가 있었다. 이외에 수노, 조총, 편전, 火禽 火獸, 雀杏 등 근접전을 위한 개인 무기류도 제작하였다.(부록 「소성부포계절목」).¹⁰⁾ 현재 19세기 중반 조선의 화포 등 무기 개발 양상에 대해 『훈국신조군기도설』, 『훈국신조신기도설』 등의 관련 서적에 보이는 무기를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당시의 무기 체계에 대해 충분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¹¹⁾ ‘일지’에 보이는 각종 화포 등의 존재는 조선의 무기 개발 양상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더 다양하고 적극적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다만 아직 근접전에서 조총 이외에 手弩, 편전과 같은 무기가 병존하고 있는 점은 18세기 널리 제작된 수노의 수량이 풍부하고 성능이 우수하여 다수의 군사들에게 지급할 수 있었다는 점과 함께 중앙군과 달리 아직 지방군의 경우 모든 군사에게 조총을 지급할만큼 수량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반영한다.

앞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일지’에서는 인천도호부의 신미양요의 대응 과정에서 이양선의 동향 등을 조정이 아닌 雲峴宮 즉 대원군에게 上書하여 상황을 전달하고 ‘雲峴宮 分付’ 등의 명령을 받아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당시 군영 등 주요 군사력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대원군이 행사하기 시작하였다는 기존 연구와도 일치하고 있고,¹²⁾ 더 나아가 ‘일지’의 기사는 그 구체적인 권력 행사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검토가 요구된다.

10) 대원군 집정기 조선의 무기 개발 양상에 대해서는 연갑수, 2002 『대원군 집정기 무기 개발과 외국 기술 도입』 『학예지』 8 ; 이재정, 2022 『1860~70년대 조선의 砲架 제작과 메이지 일본 大砲 유입』 『군사』 123 등 참조

11) 노영구, 2022 『한국의 전쟁과 과학기술문명』, 들녘, 205~210쪽

12) 연갑수, 1992 『대원군 집정의 성격과 권력구조의 변화』 『한국사론』 27

IV. 나머지말

그동안 신미양요와 관련하여 주목되었지만 ‘일지’의 다양한 측면의 자료적 가치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앞의 검토를 통해 ‘일지’는 19세기 중엽 인천을 중심으로 하여 군사제도, 무기체계 등 조선의 군사력 상황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가능하게 할 뿐 조선의 병학 연구, 그리고 운현궁을 중심으로 한 명령 전달 등 이 시기 정치사 연구 등에 매우 핵심적인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다양하게 등장하는 무기 명칭을 통해 이 시기 과학기술사 연구의 심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동안 원본이 아닌 펜으로 抄出한 필경본과 이에 바탕을 둔 번역본이 학계에 소개되어 이 책의 온전한 면모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아울러 筆耕 과정에서 오기의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확보된 원본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주본의 간행 필요성이 요구된다. 아울러 ‘일지’를 통해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19세기 중반 인천 일대의 정치, 군사사 및 지역사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郞城陣中日誌』는 신미양요 당시 인천도호부의 전쟁 대응 양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서, 19세기 조선 군사사 연구에 있어서 상당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발표자의 옥고가지닌 본 자료의 연구 목적에 대해 전적으로 찬동하는 바이며, 다만 내용상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1866년 7월의 제너럴 셔먼호 사건 당시 평안도 관찰사였던 환재 박규수가 셔먼호 격퇴에 사용했던 화공 전법은 『해국도지』의 守內河와 매우 유사한 면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소성진중일지』의 화공방략에 이러한 셔먼호 사건의 승전 방식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여부와, 만약 언급이 되어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하는 점을 알고 싶습니다.
2. 『소성진중일지』와 『용서촬요』, 『손자수』의 내용상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방어체계 및 공격방식의 특질이 존재하는지, 혹은 차이점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1869년 집필된 『손자수』의 경우에는 셔먼호 사건의 화공 전법이 반영되어 있는데, 『소성진중일지』의 내용 중 『손자수』를 참고한 면모가 드러나고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3. 1871년 6월 1일 손돌목의 포격으로 인해 신미양요의 교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이후의 전투양상을 보면 조선군은 말 그대로 3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전사하고 초지진과 덕진진, 광성보 시설이 함락되는 참패를 당한 반면, 미군은 고작 3명이 전사하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는 당시 조선군의 전투능력이 미군에 비해 상당히 미흡했음을 의미하는데, 과연 『소성진중일지』 상에 나타난 조선군의 방어 시스템에 어떤 허점이 있었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방어시스템의 전략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방어시스템은 확고했으나 방어를 위한 명령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리된 것인지, 혹은 방어시스템이 아무리 확고했더라도 미군의 공격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조선군이 무너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인지에 대한 점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당시 조선군의 장비로는 神器火箭, 九牛瓮砲, 火龍出水砲, 불랑기, 竹將軍, 龍王砲, 銅發槓火箭, 천지 화포 등의 화포 이외에 목인활마포, 神火, 飛鵝砲, 우레포, 화룡권지차, 지뢰포 등의 각종 화기가 있었고, 이외에 수노, 조총, 편전, 火禽火獸, 雀杏 등 근접전을 위한 개인 무기류가 다수 존재했었는데, 이러한 무기들의 화력과 성능이 미군의 무기와 비교했을 때 너무 형편없어서 신미양요 때 조선군이 대패한 것인지, 아니면 무기의 성능보다는 무기 보급 현황의 문제, 혹은 방어체계와 전략의 실수로 인해 패배한 것인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소장 자료로 본
19~20세기

인천

2023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학술회의

발행일 2023.10.

발행처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1942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60번길 26
tel. 032. 440. 6750

복디자인 **Designhada^{MK}** 032. 822. 0859